2011.01.05 NO.92
gonggam.korea.kr

숫자로 본 2011 국정 지표

'친서민·공정사회' 실현한다 P25~46

"안창호 선생의 강산 개조론, 4대강살리기와 일치" P10~11

역사탐험 백제 근초고왕이 2010 연평도를 봤다면 P58~60

구제역, 모두가 힘을 모으면 조기에 종식시킬 수 있습니다.

구제역은 사람에게 전염되지 않는 가축전염병입니다.

- 구제역은 인체에 무해하므로 우리 축산물을 안심하고 드셔도 됩니다.
- 구제역에 감염된 가축의 고기는 시중에 유통되지도 않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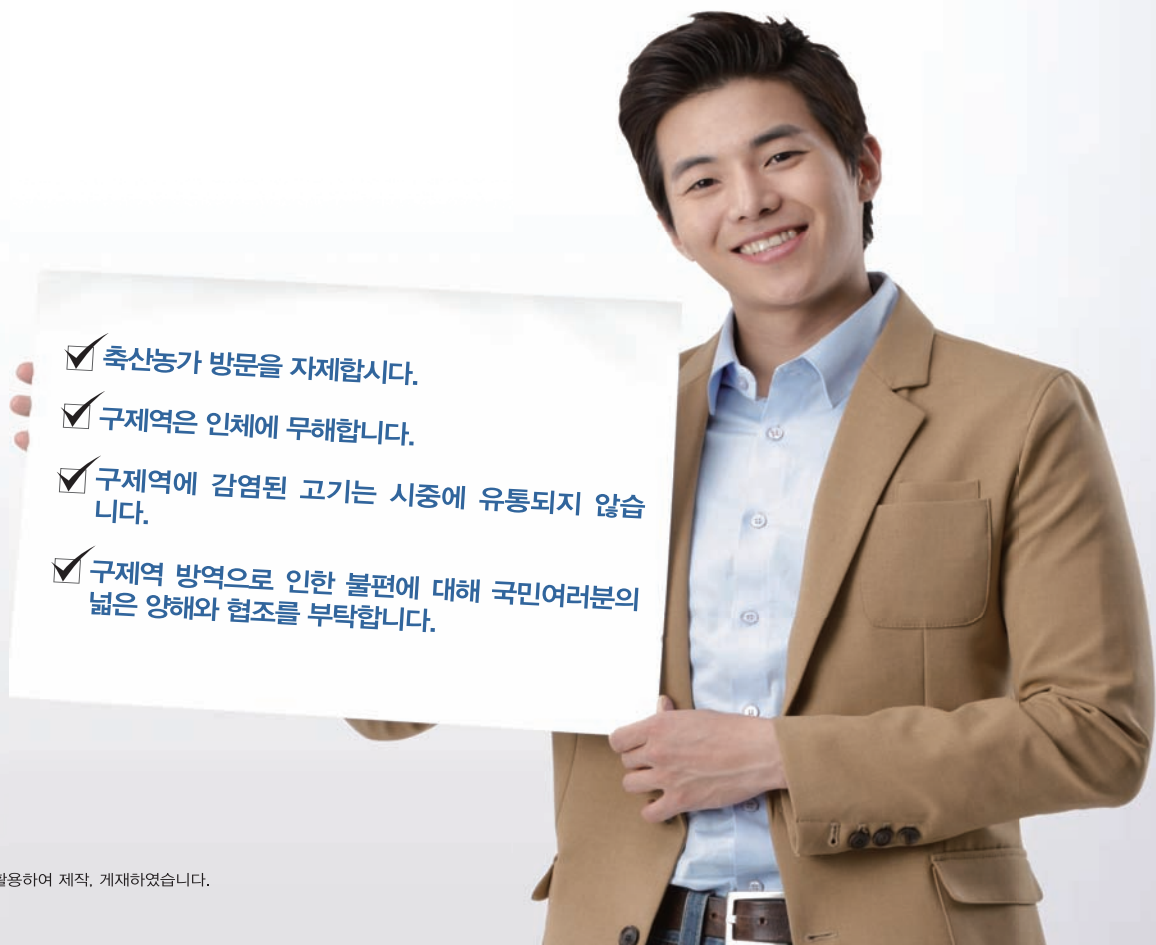
구제역 극복에는 국민여러분의 도움이 절실합니다.

- 구제역 확산 방지를 위해 구제역 발생지역과 축산농가 방문을 자제해 주십시오.

축산농가는 농장 소독을 강화하고, 출입자를 철저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 구제역 의심증상이 있으면, 반드시 신속하게 신고합시다.
- 모임은 자제하고 구제역이 종식될 때까지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단방역과 소독으로 인한 불편에 대해 국민 여러분의 넓은 양해와 많은 협조를 부탁합니다.

이 광고는 한국마사회 특별적립금을 활용하여 제작, 게재하였습니다.

〈위클리 공감〉 독자 여러분께

"세계 최대 경제영토 가진 대한민국 올해도 예상 목표 넘어섭시다"

새해가 밝았습니다. 지난 2010년은 어려운 일도 많았지만 큰 성취도 이룬 의미 있는 한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11월 서울 G20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로 대한민국은 세계 중심국가의 일원으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세계로부터 존경받고 사랑받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국격이 높아지면서 국가브랜드가 향상되고, 우리 상품에 대한 신뢰와 가치도 함께 상승했습니다.

지난해 우리 경제는 6퍼센트대의 성장을 이루어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성장률을 달성했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세계 7위의 수출대국이 되었으며, 올해에 무역 규모 1조 달러 시대를 앞두고 있습니다.

아세안 10개국과 인도, EU 27개국, 미국 등과 FTA를 마무리함으로써 세계 45개국과 FTA를 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국토는 작지만 경제영토는 세계에서 가장 넓은 나라가 되었습니다. 기업인과 근로자, 우리 국민 모두가 함께 열심히 뛴 덕분입니다.

또한 우리 젊은이들은 동계올림픽과 남녀 월드컵 축구, 그리고 광저우 아시안게임에 이르기까지 세계 최고를 향해 당당히 기량을 떨쳤습니다. 세계 1등을 향해 도전하는 젊은이들의 기상을 보면서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봅니다.

올해 세계경제는 여전히 불확실성이 남아 있고, 우리 경제의 성장도 다소 영향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세계가 다 어렵다고 해서 우리도 똑같이 어려울 이유는 없습니다. 전대미문의 경제 위기를 가장 빠르고 모범적으로 극복했던 역량을 바탕으로 더욱 열심히 한다면, 올해에도 우리는 예상했던 목표를 넘어설 수 있을 겁니다.

사랑하는 독자 여러분, 천안함 사태에 이은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은 우리 모두에게 참으로 참기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를 통해 우리는 철통 같은 안보의식을 다지게 되었습니다. 정부는 우리 군이 강한 정신력의 선진강군으로 거듭나도록 할 것입니다. 국민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최상의 안보는 단합된 국민의 힘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 된 마음으로 단결한다면 이 시련을 딛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독자 여러분, 2011년 바라는 소망 꼭 이루시고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길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신묘년 새해 아침
대통령 이명박

CONTENTS

Weekly 공감
2011.1.5
NO.92 통권 193호

숫자로 본 2011 국정 지표

기 획 특 집

'친서민·공정사회' 실현한다

무역 규모 1조 달러, 물가 3퍼센트선 억제, 5퍼센트 성장, 일자리 28만 개 창출…
2011년에 우리 국민이 만나게 될 희망의 수치들이다. 세계에서 가장 빨리, 가장 성공적으로 글로벌 금융위기를 극복한 대한민국이기에 제시 가능한 수치들이다. 글로벌 금융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정상화를 넘어 이제는 전진이다. 그 시작이 2011년이다. 우리는 그 희망의 수치들을 단순한 바람이 아닌, 삶의 현장에서 만나게 될 것이다. 친(親)서민 정책의 한가운데서, 공정한 사회 구현의 한가운데서 만나게 될 것이다. 세계에서 가장 빨리…

표지 이야기
허각은 노래 실력 하나로 1백34만대 1의 경쟁률을 뚫고 공정 사회의 대표적인 사례로 떠올랐다. 허각이 '슈퍼스타 K2' 결승전에서 열창을 하고 있다.

발행일 2011.1.5 **발행처** 문화체육관광부 **발행인** 유인촌
제작협력 조선뉴스프레스 **인쇄제본** 삼화인쇄(주) **문의** 02-3704-9668 **정기구독** 02-2625-3294

54

22

50

공 감 라운지

Weekly 공감 편집실(gonggam@korea.kr)
홈페이지(gonggam.korea.kr)
대한민국 정책포털 공감 코리아(www.korea.kr)
정책공감(blog.daum.net/hellopolicy)
청와대(www.president.go.kr) 등에 올라온 독자의 편지와 댓글입니다.

대한민국 정책정보지 〈Weekly 공감〉은 신묘년 토끼의 귀처럼 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에 '귀를 쫑긋' 기울이겠습니다.

〈Weekly 공감〉 91호(2010년 12월 29일자) 기획특집 '2011, 정부는 이렇게 일한다'와 관련해 많은 독자가 다양한 의견을 보내왔습니다.

G 새해 복지정책 전년과 비교 잘돼 있어 유익

"2011년에 시행되는 각종 복지정책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어서 유익했습니다. 사실 그동안 복지정책에 대해서 어떤 혜택이 있는지 잘 알지 못했습니다. 2010년에 비해, 조금씩 나아가는 복지정책을 비교하여 잘 보여준 것 같습니다. 하지만 기획특집이 단순히 정책의 새로운 부분에 대해서만 이야기한 것이 조금 아쉽습니다. 많은 사람이 쉽게 정보를 얻어 더 많은 사람이 도움을 받을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유태욱**

G 일자리 문제, 올해는 속 시원히 풀렸으면

"일자리 창출과 물가관리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라 하니 기대가 됩니다. 최근 몇 년간 청소년 실업이 큰 문제로 떠오르면서 일자리 창출은 매우 중요한 과제가 됐습니다. 올해야말로 일자리 문제가 속 시원히 풀렸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 실제적인 일자리 제공의 성공 사례를 다뤄 주시면 더욱 신뢰가 갈 듯합니다." **김지훈**

91호 '민간자격증 허위광고에 속지 마세요' 기사를 읽고 독자가 보내온 의견입니다

"각종 자격증이 범람하는 요즘, 이를 이용한 사기가 있는 줄은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매우 유용한 정보라 주변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더욱 철저히 감시해 줘서 억울한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배수민**

91호 '6대 종단이 함께한 평화 여행' 기사를 보고 독자가 보내온 의견입니다

"기사를 보며 평화와 행복을 위해서 종교 간의 화합을 이루려는 모습이 보기 좋았습니다. 국내 종교계 지도자들이 뜻을 모은 만큼, 기독교 성지순례뿐만 아니라 다른 종교에 대한 이해와 경험도 필요할 듯합니다. 가는 길은 다르지만 동지일 수 있다는 열린 마음이 종교뿐 아니라 사회 전반에 걸쳐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권주연**

91호 소망 들어 주는 희망 메신저 '파란 우체통' 기사를 읽고 독자가 보내온 의견입니다

"연말에 모처럼 마음이 따뜻해지는 기사였습니다. 무엇보다 일방적으로 도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소망을 적어 내면 상담을 통해 소원이 이루어진다는 설정이 참신합니다. 앞으로 관악구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까지 널리 시행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은경**

친서민 중도실용으로 선진국가 발돋움

6대 종단이 함께한 평화 여행

알립니다

연말정산, 스마트폰으로 손쉽게 하세요

국세청은 연말정산 시즌을 맞아 스마트폰용 어플리케이션인 '손안에 연말정산 2010' 앱을 출시했다. 여기에는 연말정산 항목별 상세정보를 비롯하여 세금절약에 도움이 되는 Tip 등 연말정산에 꼭 필요한 기초지식을 선별해 수록했다. 앱은 안드로이드폰과 아이폰용 2종류이며, 관련 앱스토어에서 무료로 다운로드받아 사용할 수 있다.

앱스토어 이용 | 검색어를 '연말정산' 또는 '국세청'으로 입력하여 다운로드 및 설치
안드로이드폰 T-스토어, olleh마켓, OZ스토어, 안드로이드마켓
아이폰 애플 앱스토어

QR코드 이용 | 사진의 오른쪽 이미지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여 다운로드 및 설치

징세법무국 세정홍보과(02-397-7516), 법인납세국 원천세과(02-397-1842)

〈Weekly 공감〉 91호(2010년 12월 29일자)에 실린 최석영 외교통상부 FTA 교섭대표 인터뷰 기사와 관련해 외교통상부에서 추가 설명을 보내왔습니다.

1.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발효연기가 15조원의 손실을 냈다"는 내용은 한·미 FTA의 발효 지연 시 발생하는 기회비용이 연간 15조원에 달할 것으로 대한상공회의소가 추정·발표한 바 있음을 설명한 것입니다.

2. "한·유럽연합(EU) FTA 추가협상이 없을 것"이란 전망은 이번 한·미 FTA 추가협상에서 미국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철폐는 4년간, 돼지고기는 2년간 관세철폐 일정이 후퇴되어 유럽산이 상대적으로 유리해졌음을 근거로 설명한 것입니다. 한편, 자동차 온실가스 규제 관련 내용은 FTA와는 별개이나, 다른 국가들의 사례와 같이 소규모 자동차 제작사에 대한 별도 기준을 적용하는 방안을 미국, EU와 각각 협의한 것이어서 FTA관련 추가협상이 아님을 설명한 것입니다.

공감퍼즐

1		2			
		3		4	
	5				
6					
	7		8		

빈칸의 답을 주소, 연락처와 함께 1월 12일까지 jjsmall@korea.kr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추첨을 통해 문화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아이폰 〈정책투데이〉 앱에서도 응모하실 수 있습니다.

가로

1. 성적은 우수하지만 경제적인 이유로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게 보조해 주는 돈. "새해부터 전문계 고등학교 학생의 교육비는 전액 OOO으로 지원하게 된다."
3. 서울과 의정부시에 걸쳐 있는 아름다운 산. 북한산국립공원에 속하죠. 자운봉, 우이암, 천축사….
5. 2011년 신묘년은 이 동물의 해.
6. 양력 1월 1일을 가리키죠. OO 연휴.
7. 동물의 정상적인 발육과 생리 작용을 유지하는 데 없어서는 안 되는 유기 화합물을 통틀어 이르는 말. OOO A, B, C….

세로

1. 장교와 부사관, 사병을 모두 이르는 말. "엄동설한의 추운 날씨에도 국군 OO들은 전후방에서 국방 임무에 한 치의 소홀함도 없다."
2. 금으로 만든 이것. 나무꾼과 산신령, 연못 등과 함께 전래동화에 나오죠.
4. 강원도 화천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겨울 축제. 얼음을 깨고 이 물고기를 낚습니다.
5. 조선 명종 때에 토정 이지함이 지었다고 하는 일종의 도참서. 한 해의 길흉화복을 점치는 데 쓰죠.
8. 국민의 생활, 서민의 생활. "대통령 OO 현장 탐방"

대한민국 선진화, 길을 묻다 ⑧

인생을 바꾸는 용기 있는 만남

이광석 인크루트(주) 대표이사

조선 DB

어린 시절 셋방에 살던 저는 늘 주눅이 들어 있었습니다. 중학교 때 새 학기가 되자 선생님께서 "반장 하고 싶은 사람 손 들어 봐" 하셨습니다. 기회는 이때다 싶어 손을 들었고, 친구들의 지지를 얻어 반장이 됐습니다. 부모님께서 반장이 된 저에게 큰 맘 먹고 컴퓨터를 사 주셨는데, 이것은 인생의 전환점이 됐습니다.

저는 컴퓨터를 이용해 이름, 전화번호, 주소록 프로그램을 만들고, 컴퓨터 경진대회에서 입상을 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학교 소식지를 컴퓨터 문서로 만들어서 학생들에게 나눠주기도 했습니다. 이런 경험들은 10년 후 인크루트와 같은 웹사이트를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됐습니다.

그러다 대학 2학년 때 인터넷이란 것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천문학을 공부한 저는 정보야말로 빛의 속도로 전달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던 중 신촌에서 한 '인터넷카페'를 발견했습니다. 한참 고민하다가 용기를 내어 "저는 인터넷 디렉토리를 만드는 학생입니다. 컴퓨터 잘하는 학생 필요하지 않으세요?"라고 카페 사장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 카페에 살다시피 하며 인터넷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한국인세포'라는 웹사이트를 만들어서 인터넷엑스포에 출품을 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인터넷 웹사이트를 도서관 정리하듯이, 전화번호 정리하듯이 만들고 싶다는 생각으로 'ZIP'이라는 웹사이트를 개발했습니다. ZIP은 디렉토리 검색 서비스입니다. 학생이던 제가 주도해서 만든 인터넷 백과사전이 여러 사람들에게 사용된다는 사실에 너무나 가슴이 벅찼습니다.

당시 '정보통신 산업협회'라는 곳에서 인터넷 대중화에 발맞춰서 '정보검색사'라는 자격증을 만들었습니다. 저는 협회 본부장님을 찾아가 제가 ZIP이라는 것을 만들었는데 좀 도와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본부장님은 20평짜리 사무실과 인터넷서버, 통신을 무료로 제공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용기로 이루어진 만남은 제 인생을 변화시켰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과의 소중한 만남,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 · 용기 · 진실함, 이런 것들이 언젠가 인생의 전환점이 되어 나타날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삶을 살면 안 됩니다. 내면의 말, 마음의 목소리, 영감에 깊이 귀를 기울이고 그것을 따라야 합니다. 여러 만남을 이루다 보면 내가 목표한 바를 갈 수 있고 새로운 미지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정리 · 이제남 기자

서울 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2010년 10월 1일부터 29일까지 열린 대(對)국민 강연 '대한민국 선진화, 길을 묻다'의 세부 내용을 '공감코리아(www.korea.kr)'에서 발췌 요약해 연재합니다.

공감마당

1. 가장 관심 있게 읽은 기사와 그 이유
2. 지난주 기획특집에 대한 의견
3. 〈Weekly 공감〉에서 다뤘으면 하는 내용

홍대욱 경남 양산시 소주동

1. '구제역 예방접종… 확산 방지 총력' 기사를 꼼꼼히 읽었습니다. 추운 날씨 속에 구제역으로 인한 축산농가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고생이 많네요. 철저한 소독, 접종, 관리를 통해서 빠른 시일 내에 진정되기를 바라 봅니다. 이번 기사를 통해 국민 개개인도 구제역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축산농가의 어려움을 같이 나누도록 해야겠습니다.
2. '2011 정부는 이렇게 일한다' 기사를 반갑게 봤습니다. 중산층 · 서민에게는 고른 교육과 취업의 기회가 충분히 제공되고 안정적인 물가 관리와 중소기업을 위한 동반성장, 그리고 국민 모두에게는 다양한 복지 혜택이 있는 공정하면서 풍요로운 2011년을 기대해 봅니다.
3. 2011 신묘년을 맞이해서 다양한 국민들의 새해 소망을 소개해 주세요.

오기순 서울 중구 신당동

1. 짧지만 긴 여운이 남는 '파랑새를 찾아서'를 평소 즐겨 보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번 '디딤툰 · 행복의 향기'에서 나눔과 배려의 향기는 사라지지 않는다는 말에 크게 공감을 했습니다. 이와 함께 '사서가 추천하는 책'에서 추천해 주신 책은 꼭 한번 사서 읽고 싶을 정도입니다.
2. '국민 소통혁명' 기사를 보며 평소 어렴풋이 알고 있었던 소셜 미디어가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새로운 사이버 공동체를 형성하며 그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음에 놀랐습니다. 소통의 형태가 디지털화로 빠르고 다양하게 변화하고 있는 모습에 저도 열심히 공부를 해 동참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3. 페이스북, 트위터, SNS 등 새로운 용어를 설명해 주는 코너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겨울방학을 맞아 '체험학습의 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독자의견

〈Weekly 공감〉은 독자 여러분께 더욱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 귀한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보내 주신 의견은 〈Weekly 공감〉 제작에 소중하게 반영하겠습니다. 아래의 설문에 의견을 적어 주소, 전화번호와 함께 1월 6일(목)까지 gonggam@korea.kr로 보내 주십시오. 의견이 게재된 분에게는 3만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보내 드립니다.

1. 이번 주에 실린 기사 중 가장 관심 있게 읽은 기사와 그 이유를 적어 주십시오.
2. 이번 주 특집으로 다룬 '숫자로 본 2011 국정지표'에 대한 의견을 적어주십시오.
3. 〈Weekly 공감〉에서 다뤘으면 하는 내용을 적어 주십시오.

www.nis.go.kr

NIS 국가정보원

우리 가까이 111
국가안보는 생활입니다

행복도 지키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111을 기억하세요.
우리 모두의 관심이 국가안보를 튼튼하게 만듭니다.

국가를 지키는 111

간첩, 좌익사범, 테러, 국제범죄, 산업스파이, 사이버안보위협
신고전화 111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범정부 차원 통합대응시스템 가동

구제역 확산을 막기 위해 제한적인 백신 접종이 시작됐다. 지난 12월 25일 경기 고양시 성사동의 한 젖소 농가에서 수의과학검역원 수의사들이 백신 접종을 하고 있다.

구제역 확산과 관련해 가축질병 위기경보가 최상위 단계로 격상됐다. 또 보다 효과적인 구제역 확산 차단을 위해 범정부부처가 참여하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구성돼 운영에 들어갔으며, 구제역 백신의 접종대상을 확대하는 등 구제역이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펼쳐지고 있다.

정부는 지난 12월 29일 가축질병 위기경보 단계를 현재의 ‘경계(오렌지)’에서 최상위인 ‘심각(레드)’ 단계로 격상했다. 또 구제역에 대한 종합적이고 효과적인 대처를 위해 행정안전부에 범부처가 참여하는 통합대응기구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해 이날부터 운영에 들어갔다.

이는 지난 11월 28일 경북 안동시에서 발생한 구제역이 12월 28일까지 5개 시 · 도 29개 시 · 군에서 총 60건이 발생했으며 경기 남부와 북부, 강원, 충북 등지에 이어 축산 밀집지역(안성, 용인, 충남 · 북, 전북)으로까지 확산될 우려가 있어 보다 강력한 대처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가축질병 관련 위기경보는 ‘관심-주의-경계-심각’의 4단계 체계다. 지난 2008년 ‘사상 최악’으로 불린 조류인플루엔자(AI) 유행 당시 ‘경계’ 경보를 발령한 적은 있으나 ‘심각’ 경보가 발령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가축질병 관련 위기경보는 경북 안동에서 처음 구제역이 발생한 직후인 지난 11월 29일 ‘주의’로 강화됐으며, 보름쯤 뒤인 12월 15일 ‘경계’로 격상된 바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4조에 따라 대규모 재난에 대한 관리를 총괄 · 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에 설치하는 기구로, 행정안전부 장관이 본부장이 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총괄 상황 관리 ▲부처간 협조체계 구축 ▲지자체 방역활동 지원 등 범정부적인 노력에 집중한다. 그동안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을 본부장으로 하여 운영되던 ‘중앙구제역방역대책본부’는 ‘중앙구제역수습본부’로 전

환해 ▲구제역 차단 방역 ▲예방 접종 ▲농가 지원 등에 주력하게 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운영됨에 따라 구제역이 발생한 지자체는 물론 구제역이 발생하지 않은 지자체에서도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를 설치하고 지역 내 유관기관과 협조해 이동통제, 소독, 예찰 등 구제역 차단방역 대책을 추진해야 한다.

한편 지난 12월 25일 시작된 소(牛)를 대상으로 한 제한적인 구제역 백신 접종은 순조롭게 이뤄지고 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피해발생 시 보상 등에 관한 리플릿을 제작해 접종농가, 일선공무원 등에 배포해 백신접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12월 28일 밝혔다.

지자체가 건의하면 종합 검토후 추가 예방접종

농림수산식품부는 최근 한 언론에서 '구제역 백신접종 보상대책도 허둥지둥' 제하의 보도를 통해 "해당 축산농가와 일선 공무원들 가운데 보상대책을 모르는 이들이 많아 백신접종 과정에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고 주장한 데 대해 이같이 설명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 12월 26일 구제역이 경기 여주군에서 추가로 발생됨에 따라 경기 북부와 지역(3개 시·군)에서도 구제역 예방접종을 추가 실시했다. 이번에 추가된 예방접종 대상은 발생 지역인 경기 여주군 가남면과 북내면, 예방 매몰농장이 소재한 이천시 대월면 지역을 중심으로 발생농장 반경 10킬로미터 내(양평 일부지역 포함)의 소 약 5만6천여 마리(1천6백60여 농가)다.

여주 발생농가와 이천의 예방 매몰농가는 축산 밀집지역(용인·안성 등)과 가까이 위치해 있는데다 교통 및 인적 교류 등을 감안해 볼 때 추가 확산이 우려되고 있어 경기도의 건의와 수의과학검역원의 기술 자문 등을 거쳐 '선제적' 조치로 예방접종을 실시한 것이다.

농림수산식품부 동물방역과 이상수 과장은 "앞으로도 추가 예방접종은 지자체의 건의를 받아 기술 자문과 지리적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추가 확산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대상으로 실시하게 될 것"이라며 "지자체는 접종 인력을 자체 조달하고, 농림수산식품부는 예방약과 기술 교육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고 밝혔다. G

글 · 박경아 기자

문의 농림수산식품부 동물방역과 02-500-2082
국립수의과학검역원 www.nvrqs.go.kr
가축질병 신고 전용전화 1588-4060, 1588-9060

조선DB

구제역 확산을 막는 데에는 우리 국민 모두의 협조가 필요하다. 구제역 확산 지역에서 한 남자가 오염방지용 덧신을 신고 있다.

구제역 방역과 관련하여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

* 지난 11월 28일 경북 안동시에서 발생한 구제역이 여러 지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으며, 아직 발생하지 않은 다른 지역으로 확산될 우려가 있습니다.
* 지금 추진 중인 제한적인 예방접종을 조기에 완료하겠습니다. 구제역이 발생한 5개 시·도, 29개 시·군에서 제한적인 예방접종이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나머지 발생지역도 확산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면 추가로 예방접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 구제역 확산을 차단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축산농가, 그리고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합니다. 전국의 모든 축산농가는 구제역 발생지역과 동일한 수준으로 방역 수칙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 구제역 확산을 막기 위해 철저한 농장 소독, 외부인 출입 통제, 사료·동물약품·가축수송차량 및 탑승자에 대한 통제와 소독, 외부 모임 자제 및 신속한 의심축 신고가 필요합니다.
* 구제역은 사람과 동물 사이로 병이 옮아가는 인수공통전염병이 아니므로 인체에는 아무런 해가 없습니다. 육류 소비에 대해 안심하셔도 됩니다.
* 차량소독과 이동통제는 구제역 차단을 위해 불가피한 조치입니다. 이해해 주시고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 맹형규
중앙구제역수습본부장 유정복

안병소 안창호기념관 사무총장

"4대강살리기, 도산 '강산개조론'과 일치"

서울 강남구 신사동 도산공원에 모셔진 도산 안창호 선생 동상. 도산 선생은 빼앗긴 국권을 되찾기 위해 강산 개조를 포함해 국가 개조론을 주창했다.

독립운동가이자 교육자인 도산 안창호 선생은 생전에 우리 민족의 힘을 기르지 못한 것이 국권상실의 계기가 되었다고 보고 민족개조론을 주창했다. 도산 선생은 문명한 한국을 만들자며, 우리 강과 산까지도 개조해야 한다고 '강산개조론'을 역설했다. 강산개조론은 4대강살리기 사업과 일치한다. 4대강 살리기 사업이야말로 국민의 풍요로운 젖줄을 다듬는 사업이기 때문이다.

최근 이명박 대통령이 "4대강 살리기 사업이야말로 도산 안창호 선생의 '강산(江山) 개조론'의 정신을 계승하는 것"이라고 강조한 것과 관련, 안병소 안창호기념관 사무총장이 "(안창호 선생의 사상은 4대강사업과) 똑같이 일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안병소 사무총장은 12월 28일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 세상 오늘, 이석우입니다'에 출연, "실질적으로 안창호 선생의 전기라든가 사상을 깊이 들여다보면 그렇다. 4대강뿐만 아니라 전 강을, 전 하천을 (도산의 강산 개조론처럼) 그렇게 개발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국민의 풍요로운 젖줄 다듬는 사업"

안 사무총장은 "도산은 인간들의 삶이라는 것은 개조하는 것이고, 개조하는 것은 바로 문명의 발전으로 이어진다고 했다"며 "국토의 개조정신이란 나무가 없는 산을 산림으로 무성케 개조하고, 물이 없고 제방이 없는 강을 제방을 튼튼히 쌓아서 홍수가 없이 물이 가득 흐르게 하고 좁은 길을 큰 길로 고치는 것, 즉 메마른 국토를 아름다운 강산으로 만들자는 정신"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안 사무총장은 "이 대통령뿐만 아니라 누구라도 산을 아름답게 가꾸고 강과 하천을 개조, 즉 개발해야 할 것으로 확신한다"면서 "특히 4대강 살리기 사업이야 말로 우리 국민의 풍요로운 젖줄로서 농업이라든가 공업, 상업, 관광 등 우리 국민의 삶을 풍요롭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선DB

4대강살리기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영산강. 4대강살리기 사업은 도산 선생의 강산 개조론과 맥을 같이하고 있다.

그는 도산의 강산 개조론이 1960,70년대의 산림녹화와 치수사업으로 이미 달성이 됐다는 주장에 대해 "산과 물, 개천 같은 것들은 다듬으면 다듬을수록, 끝없이 계속 아름답게 가꾸고 다듬어 줘야 하는 것"이라며 "치산치수는 발전시키는 데에, 개발하는 데에 끝이 없다"고 말했다.

"산과 강은 계속 다듬고 발전시켜야"

안 사무총장은 "국민들은 (도산의 강산 개조론을 이 대통령이 정치적으로 끌어오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지도 않는데, 정치하는 분들은 그런 것을 이슈화시켜 그렇게 말씀들을 하는 것 같다"면서 "환경에 대한 염려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궁극적으로는 산과 강은 계속 인류가 존재하면서 우리 국민, 국가의 발전, 번영이 있을 때까지 계속 다듬어 나가고 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사무총장은 국토해양부가 강산 개조론을 담은 광고를 상영하는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다"며 "(도산 안창호 선생) 그분의 개조라고 하는 것은 바로 발전하는 것인데, 계속 국토를 발전시켜 나가자고 하는 기본 정신에는 어긋남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안 사무총장은 "(환경, 문화재 파괴의 여부 등을) 상당히 고려를 해 가면서 4대강 개발을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안 사무총장은 또 도산이 창립한 흥사단이 '이명박 대통령이 강산 개조론을 왜곡하고 있다'고 비판한 데 대해서는 "흥사단의 공식적인 비판이 아니고, 흥사단 단원들 중 개인적으로 그러한 비판이 있을 수도 있다"며 "그러나 흥사단의 공식적인 입장으로는 그러한 의견이 없다"고 밝혔다. G

글 · 변윤재(데일리안 사회부 기자)

도산의 강산개조론

"강산 개조로 문명한 한국 만들어야 이 시기를 잃어버리면 천만 년의 恨"

"우리 도시와 농촌도 개조하여야 하겠소. 심지어 우리 강과 산까지도 개조하여야 하겠소."

지금으로부터 90여 년 전인 1919년 중국 상하이, 도산 안창호 선생은 나라 잃고 중국에서 살고 있는 동포들에게 한국을 개조해 문명한 한국을 만들자고 주창하면서 이렇게 '강산 개조론'을 역설했다.

나라 잃은 민족의 설움에 뼈저렸던 도산 선생은 국권을 되찾기 위해서는 한국의 모든 것을 개조해야 한다고 역설하며 개조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이제부터 우리는 이 대한을 개조하기를 시작하여야 하겠소. 1년이나 2년 후에 차차로 시작할 일이 못되고 이제부터 곧 시작해야 할 것이오. 만일 이 시기를 잃어버리면 천만 년의 유한이 될 것이오."

도산 선생은 우리 강과 산의 개조가 국민의 행복과 연결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과 산은 개조하여 무엇하나' '그것도 개조하였으면 좋지만 이 급하고 바쁜 때에 언제 그런 것들을 개조하고 있을까' 하시리다 마는 그렇지 않소. 이 강과 산을 개조하고 아니하는 데 얼마나 큰 관계가 있는지 아시오? 매우 중대한 관계가 있소. 이제 우리나라에 저 문명스럽지 못한 강과 산을 개조하여 산에는 나무가 가득히 서 있고 강에는 물이 풍만하게 흘러간다면 그것이 우리 민족에게 얼마나한 행복이 되겠소."

이어 도산 선생은 강산 개조가 산업과 과학 등의 발달과도 관계있음을 밝혔다.

"그 목재로 집을 지으며 온갖 기구를 만들고 그 물을 이용하여 온갖 수리에 관한 일을 하므로 이를 좇아서 농업, 공업, 상업 등 모든 사업이 크게 발달됩니다. 이 물자 방면뿐 아니라 다시 과학 방면과 정신 방면에도 큰 관계가 있소."

강산 개조를 아니했을 경우 나타날 수 있는 현상에 대해서도 도산 선생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만일 산과 물을 개조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자연에 맡겨 두면 산에는 나무가 없어지고 강에는 물이 마릅니다. 그러다가 하루아침에 큰비가 오면 산에는 사태가 나고 강에는 홍수가 넘쳐서 그 강산을 헐고 묻습니다. 그 강산이 황폐함을 따라서 그 민족도 약하여집니다…."

출처 : 주요한 편저 (1979) 〈안도산전서〉, 샘터사

글 · 박양호(국토연구원장)

조선 DB

국토해양부는 2011년 업무보고에서 올해 4대강살리기 본류 사업이 완공된다고 밝혔다. 사진은 한강 이포보.

위기관리 능력 녹색 생활에서 나온다

국토해양부와 환경부, 농림수산식품부가 2011년 새해 업무 계획을 내놓았다. 국토해양부는 4대강살리기 사업 등 녹색 국토와 해양을 가꾸기 위한 계획을, 환경부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 방안과 그린카드 사업을 보고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구제역, 농수산물 가격불안 등 최근 부각된 위험요소에 대한 관리 강화 방안을 내놓았다.

국토해양부 | 생명이 흐르는 녹색 국토와 해양

국토해양부는 지난 12월 27일 청와대에서 열린 2011년 업무보고에서 국토해양 선진화를 목표로 새해에는 4대강살리기사업 본류 공사 완공과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 등 '5대 중점과제' 추진에 매진하겠다고 보고했다.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은 이날 ▲4대강살리기 완공으로 활기찬 국토 창조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 ▲보금자리주택 공급 등 서민생활 안정 지원 ▲철도중심 교통기반 구축 등 녹색성장 가시화 ▲해외건설 5대 강국 진입 등을 '5대 중점과제'로 밝혔다.

정 장관은 이에 따른 핵심 실천과제로서 '4대강살리기 완공 성과의 전 국토 확산', '보금자리주택의 성공적 안착과 서민 주거안정 지원 강화', '녹색 교통 · 물류 본격 추진', '획일적인 토지이용 규제 개편' 등 추진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4대강살리기 완공 성과의 전 국토 확산이란 실천과제에 따라 내년까지 본류 공사가 완료되면 국민들이 4대강살리기의 진정한 가치를 몸소 느껴 볼 수 있도록 '4대강 나무심기 행사'(3~4월)와 '희망의 벽'(8~9월) 조성, 자전거도로를 활용한 지역축제 개최 등 행사가 이어진다. 되살아난 4대강을 완벽하게 유지하기 위해 4대강 유지관리 체계와 보 · 댐 · 저수지를 연계하는 과학적 물 관리 시스템(6월)이 구축된다.

보금자리주택 공급도 계속된다. 수도권 18만호, 지방 3만호 등 모두 21만호의 보금자리주택이 공급된다. '녹색 교통 · 물류'도 본격화돼 수도권(수서~평택), 호남(오송~광주), 전주, 남원, 순천, 여수, 인천국제공항 등지를 연결하는 KTX 고속철도망 확충에 우선 투자된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도 광역철도로 지정되는 등 사업추진이 본격화된다.

국토해양부는 이 밖에도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국토해양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예산 23조원의 61퍼센트를 상반기에 조기 집행한다. 또 지도 · 감독 위주의 규제를 일자리 창출과 국민편익 위주로 전환하고, 규제개선 내용을 일선 행정 현장에 제대로 알려 국민의 체감도를 높여 나갈 계획이다.

환경부 |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본격 시행**

내년에는 온실가스 감축정책이 본격 추진된다. 환경부는 2011년 업무보고를 통해 국가 온실가스 중기 감축목표(2020년 배출전망치 대비 30퍼센트 감축) 달성을 위한 시행방안들을 내놓았다.

이만의 환경부 장관은 '그린카드' 제도 도입계획을 밝혔다. 이를 중심으로 기존 탄소포인트제(수도 · 전기 · 가스 절약)와 대중교통 이용, 녹색제품 구입 등 다양한 녹색생활 실천에 대한 통합 인센티브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다.

또 전기차 보급이 본격화된다. 2011년에만 전기차 8백대가 보급되며, 2020년까지 1백만대의 전기차가 보급된다. 저탄소카(온실가스 발생량 킬로미터당 1백그램 이하 기준) 제도가 도입되고, 저탄소카에 대해 경차 혜택 이상의 강력한 인센티브 도입도 추진된다.

새해부터는 그간 시범 추진해 온 10개 부문별 맞춤형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대책이 전국 지자체로 확산되며,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도 전면 도입(2011년 51개, 2012년 분리배출 시행 모든 지자체 대상)할 계획이다. 탄소 목표관리제와 관련해서는 적용 대상 4백70개 사업장에 대해 첫 관리목표를 할당하고 배출량을 관리하게 된다. 동시에 배출권거래제 시범사업 추진, 산업계와 소통 확대 등 배출권거래제의 도입 · 시행을 위한 준비도 하게 된다.

한편 석면피해구제기금이 조성된다. 2011년 한 해에 1백39억원 규모다. 석면피해환자 구제급여 지급, 농어촌 등 노후 석면슬레이트지붕 철거 지원(2천5백동, 2011년), 석면안전관리법 제정 등도 추진된다.

농림수산식품부 | **위험관리 강화로 '잘사는 농어촌'**

농림수산식품부는 2011년 업무보고에서 '잘사는 농어촌, 행복한 국민' 실현을 목표로 ▲농림수산식품 분야 위험관리 강화 ▲성장동력 확충 ▲농어촌 지역 활성화 등을 핵심과제로 보고했다.

유정복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이날 구제역, 농수산물 가격불안 등 '위험관리 대폭 강화'를 최우선으로 보고했다. 구제역과 같은 가축질병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축산업 허가제'가 도입된다. 또 질병발생 농장의 보상금 삭감, 축사 출입 차량과 인력에 대한 소독 및 기록관리 의무화, 외국인 근로자의 신고 · 교육 · 소독 의무화가 강력히 추진된다.

2010년 가을 발생한 배추파동과 같은 농수산물 가격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농업관측을 재배면적 · 작황 중심에서 시세예측 중심으로 정밀화한다. 기상이변 시 월 1회 실시하던 관측은 3회로 늘려 실시한다. 주요 수급불안 품목의 농협 계약재배 물량도 현재 생산량의 10퍼센트 수준에서 2015년까지 50퍼센트로 대폭 확대하고, 저장성 있는 양념류 · 수산물의 비축물량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도매시장 가격 급등락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농산물 유통과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 개정이 추진된다. 거래방식도 농가의 선택에 따라 경매 외에 정가 · 수의매매 등으로 다양화해 나갈 계획이다. 식품산업 육성과 한식세계화도 계속된다. 전통 · 발효식품산업, 기능성 식품과 식품소재 · 기자재 산업을 적극 육성하고, 국가식품 클러스터는 2014년 완공을 목표로 2011년부터 본격 추진한다. G

글 · 박경아 기자

조선 DB

지난 12월 27일 청와대에서 열린 2011년 국토해양부 업무보고. 이명박 대통령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북한 도발 위협에 철저한 대책 세웠다

12월 29일 외교통상부와 통일부, 국방부를 끝으로 2011년 정부부처 업무보고가 마무리됐다. 외교통상부는 국민을 편안하게 하는 안보외교를, 통일부는 바른 남북관계를 위한 방안과 다각적인 통일 준비에 대해 보고했으며, 국방부는 든든한 전투력을 가진 군대, 미래지향적인 국방개혁의 비전을 제시했다.

외교통상부 | 국민과 함께하는 선진외교

'국민을 편안하게 하는 안보외교', '글로벌 코리아 심화 외교'와 함께 '개방과 공정의 외교통상부'로 거듭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다. 외교통상부는 2011년도 업무계획을 이같이 보고했다.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이날 보고에서 "최근의 특채파동으로 저하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21세기형 선진외교체제 구축을 위해 '개방성과 공정성'에 입각한 인사 및 조직쇄신 방안을 중점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외교통상부는 '국민을 편안하게 하는 안보외교'의 일환으로 한·미 전략동맹 심화와 주요국과의 전략적 협력관계를 강화해 북한 비핵화를 실질적으로 진전시킬 계획이다.

한·중·일 3국간 협력 확대와 평화통일에 대한 국제적 공감대 형성도 추진된다.

'글로벌코리아 심화 외교'를 위해 서울 G20 정상회의 후속과제 이행, 아프리카·중동 및 중남미 신흥시장 지역에 대한 외교 활동도 강화된다.

무역자유화를 위한 글로벌 네트워크 확대, 녹색성장 지원 및 개발협력 선진화를 위한 외교는 내년에도 지속된다.

'개방과 공정의 외교통상부'를 위해서는 개방적인 조직문화 정립, 능력 있는 외부인사의 적극 영입 등 '21세기형 선진외교체제'를 만들기 위한 기반이 구축된다. 또 공공외교와 민간부문과의 협력을 확대해 개방성을 높이며, 재외공관·민간·재외동포를 연결하는 글로벌 디지털 네트워크도 구축된다.

외교통상부 업무 보고가 끝난 뒤 열린 '대(對) 신흥국·개도국 외교 강화 방안'을 주제로 한 민관 합동 토론에서 참석자들은 "최근 신흥국·개도국의 부상에 따라 국제환경이 급변하고 있다"며 "변화에 대응해 이들 국가에 대한 외교를 강화해 나가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통일부 | 바른 남북관계, 함께하는 통일준비

통일부는 '북한의 바람직한 변화 유도, 바른 남북관계 정립, 통일에 대한 준비'를 3대 추진목표로 설정하고 ▲원칙 있는 대북정책 일관성 지속 ▲주민 우선 접근 ▲상호주의 강화 ▲국론결집 노력 확대를 4대 추진전략으로 발표했다.

현인택 통일부 장관은 이 같은 추진목표와 전략을 바탕으로 ▲북한의 근본적 변화 견인 ▲북한 당국의 책임성·진정성 견인 ▲북한 주민 우선의 대북정책 구현 ▲통일에 대비한 준비 노력 ▲남북교류협력체계의 전면 개편 ▲인도적 문제 해결 적극 노력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희망프로젝트 추진 ▲전방위 국론결집 강화 등을 '8대 중점 추진과제'로 정했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북한의 근본적 변화를 견인하기 위해 비핵 평화, 대외개방, 민생우선 등을 '3대 북한변화 구상'으로 추진키로 하고, 북한이 핵을 포기하면 국제사회와 함께 안전을 보장하고 경제개발을 지원한다는 내용의 '그랜드바겐' 구상을 다시 제시했다.

북한 당국의 책임성과 진정성을 이끌어내기 위해 천안함 피격사건에 따른 '5·24 대북조치'를 지속하기로 했으며 국회에 계류 중인 '북한인권법'의 조속한 제정을 통해 북한인권재단을 설립, 인권실태 조사와 대북 인권단체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남북대화와 관련해서는 핵심 현안 해결을 위한 '제대로 된 남북대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통일준비도 지속된다. 지난해 제65회 광복절 경축사에서 이 대

조선 DB

국방부는 새해 우리 군을 전투형 군대로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은 2010년 공군·지상군 합동 훈련 모습.

통령이 통일세를 언급한 것을 계기로 올 상반기 중 통일세 입법화를 추진키로 했다.

이산가족을 비롯해 납북자·국군포로 문제 등 인도적 문제 해결 노력도 지속된다. 북한이탈 주민에 대한 정착 지원도 강화해 '일자리 2천개 사업'을 지속하며 '소자본창업을 위한 희망가게 프로젝트' 등이 추진된다. 이밖에 인터넷·케이블 방송으로 '통일방송'을 운영하고 '청소년 사이버 라이브러리' 개설 등을 통해 국론결집에도 주력하기로 했다.

국방부 | 싸워 이기는 전투형 부대 만든다

"북한 도발에 대한 철저한 대비, 당장 싸워 이기는 전투형 군대, 강도 높은 국방개혁." 이날 오후 서울 용산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국방부 업무보고의 핵심은 이 세 가지로 요약된다. 김관진 국방부 장관은 국방부의 2011년 중점 과제로 이와 같은 3대 과제를 들었다.

먼저 북한의 도발에 철저하게 대비하기 위해 북한의 모든 도발 위협에 대한 대비태세를 완비하는 가운데 특히 서북 도서에 대한 도발 위협과 수도권에 위협이 되는 북한의 장사정포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이 제시됐다.

국방부는 당장 싸워 이기는 '전투형 군대' 육성을 위해서는 '항재전장(恒在戰場)' 의식을 공유해야 한다고 보고, 신병교육과 부대훈련을 통해 그동안 소홀히 해 왔던 군 기본자세 확립에도 관심을 기울이기로 했다. 또 전투력 발휘의 핵심인 간부능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임관종합평가제도'를 신설, 기준 미달자는 과감히 탈락시키기로 했다. 또 군사 전문성을 중시하는 인사관리체계를 구축해 '자유경쟁 진급심사' 제도를 정착시키고 기능분야별 자격기준을 설정해 최고의 전문가들을 보직하기로 했다.

국방개혁을 강도 높게 추진하기 위해 국방부는 선진화위원회에서 제시한 71개 과제를 적극 반영, 총 73개의 개혁과제를 선정했다. 그리고 이를 다시 단기·중기·장기 과제로 구분했다.

이 개혁과제에 따르면 2012년까지 단기적으로는 '적극적 억제전략' 개념을 구현하도록 북한의 화력, 잠수함, 특수전부대, 핵·대량살상무기(WMD) 등 비대칭 위협과 도발에 대해 자위권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응징한다. 2013년부터 2015년까지의 중기 개혁과제는 전작권 전환에 대비한 핵심능력 구비와 국방선진화를 위한 기반을 확대한다. 2016년 이후 2030년까지 장기개혁과제는 우리 군을 포괄안보 위협에 대처 가능한 군사구조로 변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G

글·박경아 기자

2011 대한민국에 바란다

품격 있고 신뢰 받는 대한민국이 되기를

이배용
국가브랜드위원장

> 새해에는 지난해의 성과를 이어받아 국가브랜드를 총체적으로 점검하고 관리하는 데 더욱 진력할 것입니다.

신묘년 새해에는 품격 있고 신뢰받는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우리 모두 한마음으로 정성을 기울이기를 소망합니다. 국가브랜드는 국가의 품격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동안 우리나라의 국가브랜드는 세계 10위권의 경제력이나 뛰어난 기술력에 비해 상당히 저평가되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문화나 관광 등 소프트웨어 부분이 인정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난해 11월 서울 G20 정상회의를 훌륭하게 치르면서 우리나라는 의장국으로서 조화의 리더십을 보여주었고, 더불어 우리 국민들의 자발적인 봉사정신과 질서 있는 모습들이 세계 언론을 통해 비치면서 대한민국에 대한 호감도와 인지도가 높아지는 큰 결실을 거두었습니다.

국가브랜드위원회에서 서울 G20 정상회의 직후 세계 16개국 4천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한국에 대해 긍정적 이미지를 갖고 있다'는 답변이 54.5퍼센트로 직전 조사에 비해 7.6퍼센트포인트 상승했습니다. G20 정상회의 개최가 한국의 국가브랜드 가치 변화에 도움 된다는 의견은 78.9퍼센트였습니다.

새해에는 지난해의 이러한 성과를 이어받아 국가브랜드를 총체적으로 점검하고 관리하는 데 더욱 진력할 것입니다. 먼저 국제적인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국제사회에 더 많은 기여를 해야 합니다. 해외봉사단을 더욱 확대하고, 물질의 나눔뿐 아니라 재능과 문화, 진정한 마음의 나눔을 함께 할 때입니다.

우리 국민들의 성숙된 시민의식을 더욱더 고양시켜 나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친절하고 따뜻한 국민, 질서 있고 청결한 대한민국이라는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서는 국민들이 주인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이를 위해 국가브랜드위원회는 다방면의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가장 한국적인 것이 세계적이라고 말합니다. 바로 우리의 문화유산과 관광자원에 대한 콘텐츠를 개발하고, 전통 속에 내재된 정신적 가치를 세계화하는 것에도 힘을 기울여야 합니다.

국격은 하루아침에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쌓아 온 역사, 정신, 문화의 바탕 위에서 발전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문화에는 현대사회의 화두가 되고 있는 소통, 화합, 나눔, 배려, 자연, 생명, 평화의 의미가 깊이 담겨 있습니다. 오래된 미래라는 말이 있듯이, 과거의 역사 속에서 현대와 미래를 잇는 인류의 귀중한 가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새해에는 국가브랜드를 종합적으로 점검해 보는 계기를 가져 보려고 합니다. 이를 위해 국가브랜드 종합전람회를 개최할 것입니다. 기업, 지방자치단체, 중앙정부, 국민들이 모두 참여하여 우리 것에 대한 이해와 자긍심을 높여 국내외에 알리고, 또한 새롭게 창조해야 할 지혜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대한민국이 잘사는 나라만이 아닌 문화가 살아있는 품격 있는 나라로, 더 나아가 인류평화를 만들어 가는 나라로 세계의 중심에 우뚝 서기를 기대합니다. G

전문가 의견을 존중하는 사회가 되자

박재갑
국립중앙의료원장

▣ 전쟁의 폐허에서 '한강의 기적'을 일군 자랑스런 우리 조국 대한민국. 지난 가을엔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의 위상에 걸맞게 의장국의 위치에서 G20 정상회의를 서울에서 개최해 냈을 정도로 커다란 성장을 이뤘다. 하지만 급성장 이면에는 국격에 어울리지 않는 모순도 공존한다.

대한민국이 명실공히 세계인이 한목소리로 부러워하는 선진국 반열에 우뚝 서기 위해선, 첫째, 우리 사회에 각 분야의 전문성을 인정하고 존중해 주는 분위기가 정착돼야 한다. 위대한 건축물이 건축가 기획에 의해 탄생되듯, 의료 제도도 이 분야 전문가의 조언을 존중해 줘야 양질의 의료 혜택이 전국민에게 골고루 제공되는 묘안이 도출될 수 있다. 물론 지난 30여 년간 시행된 의료 정책 중엔 장점도 많다. 실제 현재 대한민국 의료 수준은 '가격 대비 세계 최고의 품질'이라는 평을 받을 정도다. 하지만 의료 전문가들의 의견이 간과된 상태에서 시행된 제도 때문에 초래된 문제점도 적지 않다.

단적인 예로 수많은 의대 졸업생들이 외과 · 산부인과 등 생명을 다루는 필수 과목 전문의 되기를 기피하고, 미용 · 성형 전문가 되기를 희망하는 현실을 꼽을 수 있다. 잘못된 제도로 인한 장 · 단기적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 몫으로 남는다. 2011년에는 크고 작은 의료계 현안을 풀어 나가며, 전문가 의견을 존중해 주는 사회가 됐으면 좋겠다.

> 국가 기관 책임자 임용 때 지원자의 '10년 비전'을 검토한 뒤 결정하는 제도가 정착됐으면 좋겠다.

둘째, 선진사회가 되기 위해선 완벽주의를 탈피하고 작은 허물은 덮어 주는 아량 있는 사회 분위기도 필요해 보인다. 인간은 누구나 크고 작은 허물을 갖고 있는 불완전한 존재다. 우리 사회는 큰 업적을 이룬 사람이라 할지라도 작은 실수나 잘못이 발견되는 순간, 흠집 내기에만 연연하는 경향이 있다. 새해에는 공(功)과 과(過)를 비교해 사회적 공헌도가 훨씬 더 크다고 인정되는 사람의 작은 잘못은 인간적 한계점으로 받아들이고 용서해 주는 관용의 사회가 되기를 바란다.

셋째, 중요한 정책을 결정할 땐 선진국에서도 존중되는 국제적 기준(standard)을 맞추려는 노력도 뒤따라야 할 것 같다. 어떤 질병이건 우리나라에만 통용되는 비방이나 비법이 없듯이, 선진국에선 기피하지만 대한민국에선 통용되는 좋은 정책은 없다.

넷째, 정의로운 사회가 되려면 난센스도 없애야 한다. 62가지 발암물질을 내뿜는 마약이자 독극물인 담배를 국가가 합법적으로 판매하게 하여 많은 담배 중독자를 양산해 놓고 그 수입을 국가 재정 운영의 중요한 수단으로 활용하는 행위는 난센스의 극치라 할 수 있다.

끝으로 새해엔 정책을 좌우하고 실행하는 국가 기관의 책임자를 임용할 때 지원자의 '10년 비전(vision)'을 면밀히 분석 · 검토한 뒤 결정하는 제도가 정착됐으면 좋겠다. 물론 선택된 책임자에겐 그가 추구하는 일을 지속적으로 뒷받침해 주는 예산과 정책적 뒷받침도 수반돼야 한다.

북한의 도발을 안보의식 바로 잡는 계기로 삼자

염돈재
성균관대학교
국가전략대학원장

“우리 국민들은 의연했다. 불바다 위협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사재기도 없었고, 해병 지원율은 더욱 높아졌다.”

지난해에도 대한민국은 눈부신 발전을 이룩했다. 글로벌 금융위기에서 제일 먼저 벗어났고 세계적 무역부진 속에서도 수출이 대폭 늘어났다. G20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로 세계 중심국가의 대열에 우뚝 섰다. ‘망국’ 100년 후, 건국 65주년에 이룬 성과이기에 더욱 값지다.

앞으로도 우리는 계속 발전을 이어갈 것이다. 그러나 새해에는 온 국민이 국가안보를 더욱 소중히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안보가 튼튼해야 복지와 번영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지금 우리는 북한의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으로 휴전 이래 가장 어려운 안보위기를 맞고 있다.

앞으로도 북한의 도발은 끊임없이 이어질 것이다. 김정일의 건강악화, 거덜난 경제, 국제적 고립으로 위기에 처한 북한이 군사도발로 위기탈출을 시도할 가능성이 많다. 그간의 행적으로 보아 지금 김정일은 세습후계에 대한 반발을 방지하고, 핵보유의 기정사실화를 위해 관심을 분산시키고, 한국내 햇볕론자들의 입지를 강화하고 경제지원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군사도발과 긴장조성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 그리고 항상 그랬듯이 그들의 도발은 우리의 의표를 찌르는 방법으로 행해질 것이다. 남북 정상회담 후 평화무드에 젖어 있을 때 제2차 연평해전을 일으켰고, 제3차 연평해전에 대비하고 있을 때 천안함을 폭침했고, 대북 확성기 방송시설 공격을 예상하고 있을 때 연평도에 포격을 가했다. 앞으로는 산업시설 파괴, 요인납치, 화물선 공격, 심지어는 탈북자로 위장한 특수공작원의 테러 등 다양한 방법으로 도발이 이어질 것이다.

그러나 김정일은 지금 중대한 오판을 하고 있다. 김정일은 핵폭탄으로 위협하면 우리가 혼비백산하여 주가는 떨어지고 수출이 막혀 경제가 파탄될 것이고, 이를 계기로 우리 국민들이 종북세력들에 동조, 이명박 정부를 압박하여 대북 유화정책과 경제지원을 하도록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 국민들은 의연했다. 불바다 위협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생필품 사재기도 없었고, 주가도 단기간에 회복됐고, 젊은이들의 해병 지원율은 더욱 높아졌다. 북한의 도발은 그동안 평화무드에 젖어 해이해진 안보의식을 바로잡는 계기가 되고 있다. 우리 국민은 참으로 위대하다.

앞으로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위해 우리는 세 가지 환상에서 벗어나야 한다. 첫째, 우리가 호의를 보이고 양보하면 김정일이 변할 것이라는 환상에서 벗어나야 한다. 둘째, 북한과 교류 · 협력하면 북한 사회에 ‘자유의 박테리아’를 퍼뜨릴 수 있으리라고 기대하지도 말아야 한다. 그들은 우리보다 훨씬 영악하다. 셋째, 통일계획을 잘 짜면 후유증 없는 통일을 이룰 수 있다는 생각에서도 벗어나야 한다. 그리고 좋은 일은 항상 그렇듯이 평화와 번영과 통일에는 반드시 희생과 대가가 수반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할 것 같다.

녹색성장 리더국가로서 액션을 보여줄 때

이상엽
KAIST 교수
생명과학기술대학장

우리나라는 2008년 8월 15일 대통령께서 저탄소 녹색성장을 새로운 비전으로 제시한 이후 UN, 다보스포럼, 그리고 작년 G20서밋에 이르기까지 많은 국제 모임에서 범 국가적 녹색성장 정책 리더 역할을 해 왔다. 지난 2년여 동안 저탄소 녹색성장의 철학과 정책을 잘 수립했다면, 이제는 본격적인 액션을 보여줄 때다. 기후변화에의 효율적 대응과 에너지 자립, 그리고 그 과정에서 신성장 동력을 창출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는 저탄소 녹색성장 패러다임은 화석에너지의 친환경 에너지로의 대체, 기존 산업의 친환경 기반 고도화, 신규 녹색기술 개발과 성장동력화 등 다양한 전략들이 동시에 추구되면서 녹색경제로의 전환을 이끌 것이다.

석유화학산업을 예로 들어 보자. 저탄소 녹색성장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나오면서 일부에서는 "석유화학산업은 이산화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주범이다"라고 말한다. 하지만 그것은 옳지 않다. 석유화학산업은 우리나라가 이만큼 성장하는 데 매우 큰 기여를 해 왔고 지금도 국가 주력 기간산업이다. 대신 "이제까지 큰 기여를 해 왔으나, 이제부터는 녹색성장을 위하여 환경친화적인 공정으로의 재편을 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 옳다.

녹색성장을 위한 석유화학산업의 재편 방안의 하나로 바이오리파이너리 (biorefinery) 구축을 통한 재생 가능한 비식용 바이오매스로부터의 화학물질 생산을 들 수 있다. 즉, 1백퍼센트 수입하고 있는 원유를 원료로 화학물질을 생산하는 석유화학공정(refinery) 대신 볏짚, 잡초, 나무찌꺼기 등 바이오매스를 원료로 하여 미생물을 이용한 전환을 통해 다양한 화학물질을 생산하는 바이오리파이너리로의 전환이 요구되는 것이다. 전체 공정의 효율을 결정하는 것은 미생물을 이용한 전환 공정인데, 자연계에 존재하는 미생물들을 분리하여 이용할 시에는 우리가 원하는 화학물질의 생산 효율이 매우 낮다. 따라서, 대사공학(metabolic engineering)이라는 기술을 이용하여 미생물의 대사회로를 조작하여 성능을 올리게 된다.

> "저탄소 녹색성장 패러다임은 다양한 전략들이 추구되면서 녹색경제로의 전환을 이끌 것이다."

필자의 연구실에서 개발한 바이오 기반의 숙신산 생산 공정을 예로 보자. 숙신산은 다양한 용매와 플라스틱의 원료로 사용되는 범용 핵심 화학물질이다. 석유화학 공정으로 생산하는 대신, 한우의 반추위로부터 분리한 맨하이미아라는 박테리아에게 다양한 바이오매스 유래 탄소원을 먹이면 숙신산을 만든다. 하지만 그 효율이 높지 않기 때문에, 대사공학에 의해 숙신산 생산 효율을 2배 올리고, 불필요한 부산물은 생산이 안되도록 대사회로를 조작하여 가장 효율적인 숙신산 생산 공정을 개발할 수 있었다.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에너지, 고분자 등의 원료가 되는 많은 화학물질들을 친환경적인 바이오 기반으로 생산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바이오리파이너리 시스템이 구축되면 이제까지 우리 경제를 이끌어 온 석유화학산업이 제2의 도약을 할 수 있을 것이며, 저탄소 녹색성장의 성공적인 모델로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G

역사와 전통문화, 현대적 콘텐츠로 활용을

최광식
국립중앙박물관장

국립중앙박물관은 2010년에 용산 이전 개관 5주년을 맞이하여 다채로운 행사를 가졌다. 특히 고려불화대전은 우리나라 박물관 역사상 최고의 전시로 평가를 받았고, 서울 G20 정상회의 환영리셉션과 업무만찬을 박물관에서 열어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세계에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

정상회의에 참석하였던 오바마 대통령을 비롯한 33명의 세계 정상들은 이구동성으로 한국문화의 독특함과 국립중앙박물관의 시설에 대해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그들은 한국이 경제적으로 신흥부국이라는 것은 알았지만 유구한 역사와 독특한 전통문화를 갖추고 있다는 것을 이번 기회에 알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쉽게 말해서 대한민국이 졸부인 줄 알았는데 뼈대 있는 집안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으며, 이를 통해 대한민국의 국격을 높이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한국은 경제적으로 세계 10위 정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지만, 국가브랜드 가치는 30위 정도에 머물고 있다. 국가브랜드 가치를 높이려면 문화예술 분야의 위상을 제고시켜야만 할 것이다. 하드파워와 함께 소프트파워를 길러야 스마트파워를 갖춘 진정한 선진국이 될 수 있는 것이다.

> 한국적이면서도 글로벌 스탠더드에 이를 수 있는 명품을 재창조해 내었으면 한다.

우리는 5천년의 유구한 역사와 함께 독창적인 전통문화를 계승하여 왔다. 이제는 이러한 역사와 전통문화를 창조적으로 계승 발전시킬 방안을 찾고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역사와 전통문화를 현대사회에 맞는 문화콘텐츠를 활용할 수 있는 법고창신(法古創新)의 지혜가 필요한 것이다. 옛것을 본받아 새로운 것을 창조해 내는 법고창신의 지혜는 우리가 늘 접하고 있는 의식주 생활에서부터 실천이 가능하다.

유물과 유적지에 있는 문화유산을 보존 관리하는 차원에서 한 발 나아가 이를 창조적으로 활용하는 적극적 사고와 실천이 필요한 시기다. 우리의 문화유산을 의복의 디자인에 활용하고, 과거 조상들이 사용하였던 소반과 같은 유물을 음식문화에 활용하며, 삼국시대와 고려시대의 건축을 현대건축에 활용하는 방안들이 다양하게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그동안 세계화한다고 등한시하였던 전통문화를 오히려 세계화 시대에 국제경제력을 갖추는 원동력으로 활용하는 지혜가 필요한 것이다. 온돌문화는 이제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 여러 나라에서 아파트를 건축하는 데 활용되고 있으며, 한글의 세계화도 일부 이루어지고 있다.

이와 같이 2011년은 한국적이면서도 글로벌 스탠더드에 이를 수 있는 명품을 여러 분야에서 재창조해 내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다. 특정한 사람만이 아니라 모든 국민이 한국의 역사와 문화에 관심을 갖고 이를 활용하는 새해가 되기를 바란다.

약자 배려하는 고유 민족정서 살리자

윤태희
미국클렘슨대학교
응용경제학 겸임교수
에너원코리아 회장

우리 민족은 강대국 사이에 끼여 오랫동안 수난 속에서 생존해 왔다. 우리는 지난 한 세기 동안 36년간의 식민지, 세계 2차 대전의 종결과 해방의 기쁨, 1948년 대한민국 수립, 1950년 6 · 25 동란이라는 시련을 겪었다. 이 역사의 질곡 속에서도 우리나라는 수천년 묵은 가난의 사슬을 끊고, 단기간에 민주주의를 이룩하는 세계사에 빛나는 기록을 세웠다. 지금 전개되고 있는 세계 정세를 볼 때, 우리나라는 우리 민족이 세계 속에서 진정한 일등 국가로 승격해 남북 통일의 염원을 성취하고 백년대계를 세워 살아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느냐, 혹은 분단국가에서 이류 국가로 전락하느냐 하는 중대한 국면이 향후 1~2년 내에 도래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한민국 구성원들을 냉철히 분석해 보면, 진정한 목적의식 없이 무한 경쟁과 극단적인 투쟁만을 반복하고 있다. 어느 나라에서도 볼 수 없는 모순 속에 한없이 고단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다. 또한 이 나라는 강자나 약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다 같이 망각증(amnesia)과 단기적 출세(social climbing)에 도취된 희귀한 현상이 지배하는 나라다. 우리가 오늘날 누리고 있는 정치적 자유와 물질적 번영을 어떠한 대가를 치르고 성취했으며, 이것을 계속해서 누리면서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갈 수 있는 기본적 토대가 무엇인지도 생각하지 않는 것이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의 자화상이라고 할 수 있다.

> 국민과 위정자와 정부가 혼연일체 되어, 강대국에 무시당하지 않는 나라로 발전시키기를 바란다.

국토와 민족이 분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만은 다행히 20세기의 공산체제 실험이라는 허송세월을 모면할 수 있었고, 극빈국의 고통에서 해방되어 G20이라는 위치에까지 오르는 역사적인 비약을 이루어 냈다. 하지만, 모든 성과가 하루아침에 붕괴될 수 있는 남북의 대립상황도 간과한 채, 대한민국의 정체성조차 암시적으로 부정하는 선동적인 정객들이 많은 국민의 지지를 받는 역설적 현상이 오늘의 대한민국의 실정이기도 하다. 대다수의 국민은 정치에 관해 무관심으로 일관하고,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개인의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한, 무한 경쟁을 펼치기에만 급급해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2011년에는 세계 유례가 없는 막대한 국력의 낭비와 소모적이고 분열을 조장하는 단기적 인기전술에 불과한 정책입안을 중단하기를 바란다. 대한민국이 진정한 의미의 경제적 · 정치적 · 문화적 · 군사적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국민과 위정자와 정부가 혼연일체가 되어, 강대국에 무시당하지 않는 나라로 발전시키는 꿈을 이루어 가는 대장정에 돌입하는 원년이 되기를 바란다.

또한, 있는 자들은 어떠한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돈만 벌면 그만이라는 이기적인 가치관을 버리고, 공동체의 일원인 불우한 처지에 있는 소수의 약자를 배려할 줄 아는 이 나라 고유의 민족정서를 회생시켜 주기를 바란다.

2011년 아침을 여는 사람들

토끼처럼 열심히 뛥시다

2011년 새해가 밝았다. 빌딩숲 속에 사는 도시인들은 일출을 볼 기회가 거의 없지만, 그래도 해는 매일 떠오른다. 바다, 산, 새벽시장 등에서 태양이 선물해 주는 여명과 함께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들에게서 새해의 정기를 받아 보자.

1 강원도 평창군 대관령 일원의 황태 덕장. 이른 아침부터 주민들이 나와 덕장을 손보고 있다. (연합DB)

2 충남 태안군 신진도항에서 어부들이 잡은 생선을 운반하고 있다. (조선DB)

3 서울 광진정보도서관 이용객들이 이른 아침부터 도서관 불을 밝히며 공부를 하고 있다.
이경호(C영상미디어 기자)

4 강릉시 정동진을 찾은 관광객들이 장엄한 일출을 바라보며 새해 소망을 기원하고 있다. (연합DB)

5 서울 아차산의 해맞이 광장에서 바라본 풍경. 은은하게 밝아오는 여명과 함께 도시인들도 불을 밝히고 있다.
김승완(C영상미디어 기자)

내집앞 내점포 앞 눈치우기는
우리의 미풍양속

성숙된 시민의식은 안전한국의 지름길!!!

"2006년 부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가 시행 되었습니다."(2006년 법 제정 운영)

소방방재청 홈페이지 http://www.nema.go.kr

숫자로 본 2011 국정지표

‘친서민·공정사회’ 실현한다

무역 규모 1조 달러, 물가 3퍼센트선 억제, 5퍼센트 성장, 일자리 28만 개 창출…
2011년에 우리 국민이 만나게 될 희망의 수치들이다. 세계에서 가장 빨리, 가장 성공적으로 글로벌 금융위기를 극복한 대한민국이기에 제시 가능한 수치들이다. 글로벌 금융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정상화를 넘어 이제는 전진이다. 그 시작이 2011년이다. 우리는 그 희망의 수치들을 단순한 바람이 아닌, 삶의 현장에서 만나게 될 것이다. 친(親)서민 정책의 한가운데서, 공정한 사회 구현의 한가운데서 만나게 될 것이다. 세계에서 가장 빨리…

조선 DB

정부는 선진국과 신흥국에 대한 맞춤형 전략을 통해 무역 1조 달러를 돌파한다는 구상이다.

수출입 1조 달러 '무역대국' 속도 높인다

세계 9번째로 무역 규모 1조 달러 돌파가 예상된다. 1억 달러 수준이었던 51년 이후 60년 만에 1만 배 신장한 수치다. FTA로 대별되는 수출다변화와 G20으로 상징되는 글로벌 투자환경 조성 등을 무역 1조 달러를 위한 교두보로 삼는다는 방침이다.

'무역 1조 달러 선진경제의 원년으로'. 2011년은 한국 무역사에서 기념비적인 해로 기록될 전망이다. 2010년 수출 세계 7대 강국으로 진입한 데 이어 2011년에는 세계에서 9번째로 무역 규모 1조 달러를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 수출은 10.3퍼센트 증가한 5천1백30억 달러, 수입은 15.1퍼센트 늘어난 4천8백80억 달러가 예상된다.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 입장에선 환영할 만한 일이다.

정부만의 기대가 아니다.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EIU), 글로벌 인사이트, 한국개발연구원, 무역협회 등 국내외 기관들이 입을 모아 한국의 무역 1조 달러 돌파를 예견하고 있다. 지식경제부는 다양한 지원 전략을 마련, 1조 달러 무역대국을 향한 속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먼저 수출지역 다변화의 폭과 깊이를 확대한다. 크게 보면 투 트랙 정책이다. 최근 들어 더욱 부상하고 있는 신흥국과는 동반성장을 통한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선진국 시장은 자유무역협정(FTA)을 계기로 점유율을 높인다는 전략이다. 수출지역 다변화는 규모를 불리는 것은 물론 특정 지역에 이상이 생겼을 때 우리 경제에 미치는 충격을 완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효과적이다.

선진국 시장에선 FTA의 효과를 극대화한다. 현재 미국과 EU에서의 한국 상품 점유율은 답보 상

태다. 미국의 경우 2006년 2.5퍼센트 수준, EU는 2.7퍼센트 안팎에 묶여 있다. 이 두 지역에 대한 선도적인 FTA 체결은 시장 확대의 중요한 돌파구가 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국제무역연구원은 "2011년은 한·EU FTA, 한·페루 FTA 발표, 한·미 FTA 발효 가능성 등으로 FTA 체결시대에서 FTA 활용시대로 진입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를 위해 먼저 자동차 부품 등 FTA의 수혜를 많이 받는 품목을 중심으로 수출을 확대할 계획이다. 2011년 3~9월을 전략지원기간으로 정하고 집중적이고 전방위적인 지원을 추진할 방침이다. 기업의 FTA 활용 극대화를 위해 정보제공, 컨설팅, 인력 양성도 확대하고 취약 기업에 대해선 무역조정지원제도와 R&D 부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한·미 FTA 체결에 따른 수출 증가액 (단위 : 백만 달러)

	연평균	1~5년	6~10년	11~15년
자동차	1,089	871	1,198	1,198
전기전자	623	341	763	764
섬유	227	176	248	258
화학	191	103	234	235
일반기계	103	59	125	126
생활용품	25	22	26	27
철강	18	9	23	23
제조업 전체	2,547	1,743	2,940	2,959

자료 : 〈한미 FTA의 경제적 효과 분석〉,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등

수출입 추이와 2011 전망 (단위 : 억 달러)

	2007	2008	2009	2010	2011
수출	3,715	4,220	3,635	4,650	5,130
수입	3,568	4,353	3,231	4,240	4,880
무역수지	147	△133	404	410	250

자료 :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지식경제부 ※ 2010, 2011년은 지식경제부 전망치

기업 FTA 활용 극대화 전방위 지원

신흥시장에선 지역의 특성에 따라 맞춤형 전략을 추진한다. 중국과 인도, 아세안 지역에서 중산층 시장과 교역 규모를 확대하기로 했다. 가령 중국의 경우 지역별로 산업이나 소득수준 등 경제환경이 다르다는 점에 주목, 차별화된 전략을 시행한다. 부품소재의 경우 환황해 지역엔 자동차와 소프트웨어를, 화동 지역엔 아웃소싱과 태양광, 화남 지역엔 전자, 동북 지역엔 조선업을 적극적으로 진출시킬 예정이다.

자원개발과 플랜트 등 인프라 부문의 진출도 확대한다. 산업에 이제 눈을 뜬 신흥국들의 인프라 수요는 엄청나다. 이 인프라 구축과 신흥국의 자원개발을 연계한다는 전략이다. 떠오르는 거대 시장인 아프리카를 예로 들어 보자. 이 지역은 미개척의 자원과 시장이 풍부하다. 우리의 개발경험과 노하우를 제공한다면 해당 인프라와 플랜트 시장에 대한 진출을 확대할 수 있다. 해당국이 육성하는 산업에 대한 협력을 강화하는 방식으로도 진출 규모를 늘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G20 시대에 걸맞은 투자환경도 조성해 무역대국을 향한 발걸음에 속도를 붙일 계획이다. G20의 경제적 효과는 이미 검증됐다. G20서울정상회의를 개최한 2010년의 경우 지난 6년간 가장 많은 1백20억 달러의 외국인 투자를 유치했다.

먼저 투자유치 대상국에 따라 차별화한 전략을 실시한다. 전통적인 투자국은 FTA를 최대한 활용하고 신흥 투자국에 대해선 맞춤형 유치 기반을 제공해 투자국의 저변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미국과 EU에는 부품과 소재 분야의 투자를 끌어 들인다. 서비스 부문에선 FTA 체결에 따른 시장개방의 장점을 활용해 한국을 동북아 지역의 거점으로 활용하도록 유도한다. 중국과 중동 등 자본이 풍부한 신흥국 국부펀드 유치도 활성화할 방침이다.

해외자본 유치 다변화·선진화

투자 분야는 전략적으로 접근한다. 기술이나 고용, 지역개발 등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부문을 중심으로 투자를 유치하겠다는 것. 우리가 필요로 하는 기술을 보유한 기업, 지식서비스와 금융 등 고부가 서비스산업 등이 대표적이다.

유치 방식도 다변화한다. 해외 자본을 국내에 들여오는 일방적인 방식에서 벗어나 다양한 협력관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가령 해외의 자본과 우리의 기술을 결합해 제3의 지역에 진출하거나 해외기업과 국내기업이 공동으로 마케팅을 진행하는 방식이다.

민간투자를 유인할 수 있는 R&D 지원체계, 산업 수요를 적절히 제공할 수 있는 금융지원, 산업인력 양성 시스템 선진화 등 산업 플랫폼의 혁신도 추진된다. 정부 R&D 혁신의 성과를 민간으로 확산해 무역 1조 달러 달성은 물론 그 이후에도 지속적인 성장을 하기 위한 내실 강화의 차원이다.

기업의 지속가능경영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강조되는 국제사회의 움직임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이를 위해 사회적 책임의 국제 표준인 ISO 26000의 '맞춤형 이행 가이드'를 개발, 보급할 계획이다. G

글·변형주 기자

장바구니 물가 3퍼센트선 억제

수급안정·모니터링 강화, 가격정보 공개 확대

국제 원자재 가격의 오름세가 이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 물가도 적잖은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정부는 목표인 소비자물가 3퍼센트선 억제를 위해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했다. 서민생활과 밀접한 품목을 최우선으로 현장중심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조선DB

이경민(C영상미디어 기자)

정부는 수급안정과 유통구조 개선, 모니터링 강화를 통해 농산물 가격 안정을 유도할 계획이다.

지난해 가을, 주부들은 고민에 빠졌다. 배추값이 치솟아 김장 비용이 예년에 비해 몇 배나 필요해졌기 때문이다. 정부는 발 빠르게 대책 마련에 나섰지만 당장 해결될 문제는 아니었다. 기상이변에 따라 생산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했기 때문이다. 시간이 지나면서 일시적인 공급부족으로 인한 채소값 상승도 잦아들었지만 문제가 모두 해결된 것은 아니었다. 재발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과제가 생긴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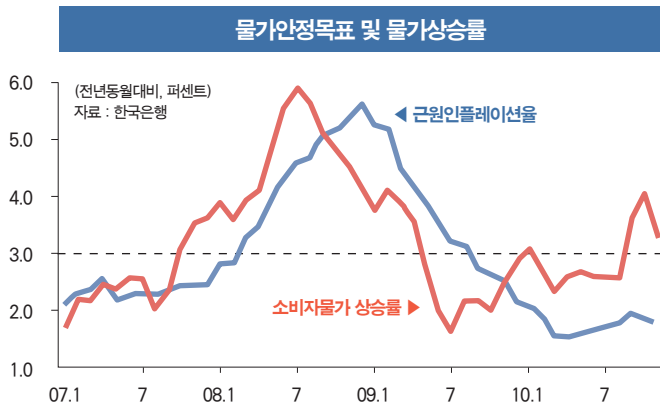
정부는 즉각 관계부처 합동 상시물가점검 체계를 구축했다. 기획재정부를 비롯해 농림수산식품부, 지식경제부, 행정안전부 등 13개 부처가 참여한 대규모 '물가안정 대책회의'를 구성해 물가안정 대책을 내놓았다. '서민생활 안정대책'이 그것이다. 서민생활과 밀접한 품목의 가격이 안정될 수 있도록 현장중심적이고 시장친화적인 정책 대응을 해 나가겠다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이를 통해 올해 소비자물가를 지난해 수준인 3퍼센트선에서 억제한다는 목표다.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박차

지난해 가격이 단기 급등해 서민생활에 근심을 자아냈던 농산물 가격에 대해서는 입체적인 대책이 도입된다. 먼저 수급의 안정을 강화한다.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으로 인한 가격변동을 최소화한다는 것. 첫 단계는 정확한 상황파악이다. 이를 위해 월 1회였던 관측을 3회로 늘리고 관측 품목도 추가한다.

안정적인 생산을 위해 계약재배도 확대하기로 했다. 계약재배는 수급안정은 물론 농가와 소비자에게 안정적인 소득과 가격

조선 DB

전기요금 등은 공공기관의 자발적 원가절감을 통해 안정화시킬 수 있다.

을 제공하는 효과도 있다. 채소류의 경우 종전 10퍼센트였던 것을 15퍼센트로 늘리고 지난해 김장철에 '파동'을 겪었던 배추와 무의 계약재배는 20퍼센트까지 높인다. 농산물 수급안정을 위해 정부는 1천억원 수준의 지원을 추진하기로 했다.

유통방식도 개선해 나간다. 가격변동을 부추기는 측면이 있는 현행 도매시장의 경매 방식을 정가 및 수의매매 방식으로 전환시킨다. 전자거래와 직거래 등을 확대해 유통비용도 줄여 나가기로 했다. 새로운 제도도 도입한다. 농산물 가격 상승폭을 미리 정해 가격급등을 막는 '가격안정제'가 담긴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농산물 외에 생활필수품의 유통구조도 바꿔 나간다. 세제와 화장지 같은 생활용품, 유모차와 기저귀 등 아동용품군, TV를 비롯한 가전용품군 등의 유통단계를 축소하고 신유통채널을 활성화해 가격상승을 완화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국내와 해외 판매 가격 차이가 큰 화장품의 경우 병행수입의 문을 더 열어 가격차이를 좁히기로 했다.

주요 생필품 부문에 대한 가격정보 공개범위도 넓힌다. 소비자의 선택권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국내외 가격차를 분기별로 조사하는 한편 소비자원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되는 정보의 양도 확대한다. 현재 80개 생필품에서 이 · 미용료와 자장면 등 10개 개인서비스요금, 상하수도료 등 11개 지방공공요금, 세제와 화장지 등 유통업체별 공급가격을 추가로 공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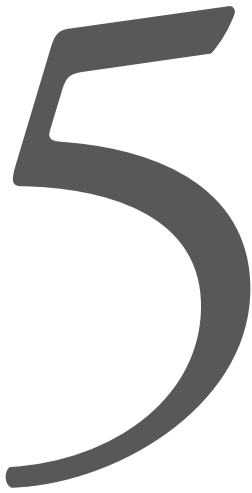
국제유가의 상승에 따라 오름세가 지속되고 있는 석유제품에 대한 가격 공개도 넓어진다. 먼저 유가예보 시스템을 도입하고 유통업체 등이 운영하는 자가폴과 셀프주유소 등 판매유형별 유가정보도 제공한다. 현재 주유소별 단순 유가만 공개하던 것을 다음주 가격 전망, 주유소 형태별 가격차이, 국제 석유제품 가격 등 다양한 정보를 내놓아 소비자의 선택 폭을 확대한다는 취지다.

서비스 요금도 묶는다. 우선 중앙공공요금과 경쟁을 유도해 지방의 물가를 잡는다. 지방물가 종합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지방의 물가정보를 알려 중앙의 물가와 비교할 수 있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전기 · 가스 · 수도 등 공공요금은 공공기관의 자발적 원가절감을 통해 안정화시킨다. 이를 위해 일정 기간 동안 가격 상한선을 정해 두는 중기(中期) 요금협의제를 시범 도입하기로 했다.

서민생활과 밀접한 수입품 관세는 인하

2011년 물가안정의 성패를 가르는 요인 중 하나는 국제원자재 가격이다. 지난해부터 시작된 국제유가, 곡물, 설탕 등 원자재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 미국이 경기부양을 위해 달러화를 엄청나게 풀었기 때문이다. 국제 원자재 가격이 오르면 국내 소비자물가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휘발유, 제빵과 제과, 밀가루 등 서민생활과 밀접한 품목들의 가격상승 압력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는 수입품 가격 상승에 따른 물가상승을 억제하기 위한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올 1월 1일부터 서민 생활물가와 밀접한 품목에 할당관세를 적용해 관세율을 인하하기로 한 것이다. 할당관세는 기본 관세율의 40퍼센트포인트 범위 안에서 관세율을 한시적으로 인하하는 탄력관세제도다. 할당관세를 받으면 수입가격이 낮아지기 때문에 국내물가 안정에도 기여하는 효과가 있다. 할당관세를 적용받는 품목은 휘발유 등 석유제품, 설탕, 제분용 밀과 밀가루, 옥수수, 화장품과 화장비누, 타이어 등 67개다. 지난해 할당관세를 적용받던 57개 품목 가운데 수입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거나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43개 품목은 그대로 할당관세 혜택을 받는다. G

글 · 장승규(한경비즈니스 기자)

소비 밀고, 투자 끌고 '쌍끌이'로 5퍼센트 성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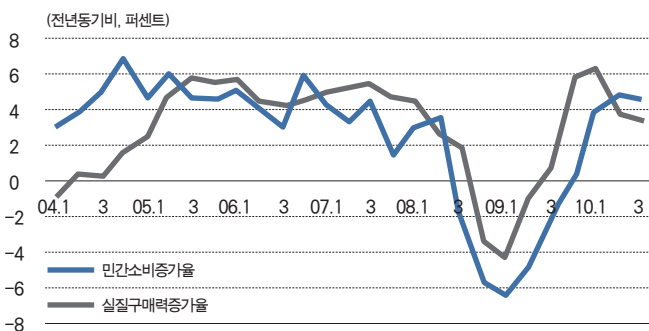
2011년 GDP 성장률 5퍼센트. 정부가 내놓은 새해 경제의 가장 큰 밑그림이다. 지나친 낙관론이라는 지적도 있지만 충분히 도달 가능한 목표라고 정부는 강조한다. 설비투자, 소비, 건설투자 등 GDP 성장을 위한 환경이 더욱 개선되고 있기 때문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한국은 OECD회원국 가운데 향후 5년(2010~2015) 동안 가장 빠른 성장세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된다. 실질GDP 성장률이 OECD 평균인 2.7퍼센트의 갑절에 가까운 4.3퍼센트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한국경제가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놀랄 만한 회복세를 보이며 또 다른 성장의 기회를 잡았다는 점엔 이론의 여지가 없다. 2011년에도 한국경제의 활력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각종 지표 상으로도 '희망의 근거'는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다.

GDP 성장 기여도, 민간 주도로 전환

GDP 성장률을 좌우하는 변수는 소비와 투자다. 민간소비, 설비투자, 건설투자 등이 이를 짐작할 수 있는 대표적인 지표다. 이 세 지표는 최근까지 상당히 순조로운 흐름을 보이고 있다. 급성장까지는 아니라도 안정적인 성장을 기대하기엔 부족하지 않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가계 실질구매력과 민간소비

자료 : 통계청, 한국은행 ※ 실질구매력 = 실질임금 X 취업자수

이를 뒷받침하는 것이 정부 주도였던 GDP 성장 기여도가 2010년 들어 민간 주도로 전환되고 있다는 점이다. 민간부문의 자생력이 부활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재정이 아니라 시장의 정상화를 통한 성장이 기대되는 대목이다.

민간소비는 연간 4퍼센트 초중반대의 증가율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소득과 자산이 모두 불어나며 지출 기반이 확대될 것이기 때문이다.

2011년에도 고용과 소득의 회복이 지속될 전망이다. 2010년 들어 전년동기대비 취업자 수가 증가하는 추세다. 1분기 13만2천명, 2분기 43만3천명, 3분기 36만9천명이 늘었다. 2011년 정부는 28만 개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목표다. 그동안 동결됐던 공무원의 임금이 5.1퍼센트 인상된 것도 경제 전체의 구매력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주식시장의 성장에 따라 자산이 늘고, 그에 따라 소비가 증가하는 효과도 바라볼 수 있다. 2010년 말 주가지수 2000을 탈환한 코스피는 2011년 상승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증권업계는 2천300~2천400까지 오를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한국기업의 역량 강화에 따른 실적 개선, 외국인 자금의 유입과 퇴직연금 확대 등에 따른 매수기반 확대 등이 그 근거다. 한국개발연구원에 따르면 주가지수가 1퍼센트 상승하면 다음 분기 소비는 0.03퍼센트 증가한다.

민간소비 증가의 걸림돌이 될 수 있는 가계부채 문제에 대한 해결책도 마련한다. 선진국에 비해 과도한 가처분소득대비 가계대출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변동금리부대출에서 부동금리부대출로 구조를 전환해 금리

소득과 자산이 불어나며 민간소비가 4퍼센트대의 안정적인 성장을 이룰 것으로 전망된다.

인상에 따라 원리금 상환 부담이 커지는 구조를 개선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설비투자도 7퍼센트 가량 불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2010년에 비해서는 다소 둔화된 수준이지만 기저효과를 감안한다면 양호한 성장세라고 할 수 있다. 경기회복이 지속되고 기업의 수익성이 개선되면서 기업은 설비투자에 나설 여력이 생길 것으로 기대된다. 이런 조짐은 실제 통계 수치로도 확인할 수 있다.

제조기업의 평균가동률이 80퍼센트 안팎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2009년 말 5.0퍼센트였던 상장기업의 영업이익률이 2010년 3분기에 7.2퍼센트까지 개선, 투자 여력이 확보된 것으로 파악된다.

올해 기대되는 비주택 건설경기

정책금융공사의 조사에서도 유사한 결론을 얻을 수 있다. 39개 업종 3천5백98개 기업을 대상으로 2011년 설비투자 계획을 설문조사한 결과 2011년에 비해 0.9퍼센트 증가한 1백15조 7천억 원을 투자할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업종도 전기전자 위주에서 2011년에는 석유화학, 통신서비스, 운송장비 등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성장폭은 줄었으나 규모 면에서는 착실한 성장세라는 게 정책금융공사의 해석이다.

설비투자의 확대는 GDP 성장을 위한 또 다른 효과를 수반한다. 재고의 증가다. 금융위기 이후 경기가 위축되면서 기업의 재고는 8분기 연속 축소됐지만 2009년 말 경기회복과 함께 증가세로 돌아서면서 GDP 성장에 적잖게 기여했다. 2011년에도 설비투자가 늘면서 재고가 증가하고 이것이 GDP 증가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물론 경기회복이 지속된다는 전제 하에서다.

건설투자도 2퍼센트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 따르면 건설기업의 경기실사지수(BSI)는 3개월 연속 상승, 회복세에 접어 들었다. 2010년 11월 현재 기준치인 1백에 미치지 못하는 81.3에 머물러 있지만 올해엔 보다 활기를 되찾을 것으로 정부는 판단하고 있다.

선행지표상으로도 이를 감지할 수 있다. 주택허가면적과 주택건축수주가 2010년 2분기까지 큰 폭으로 증가했다. 허가면적과 수주가 늘었다는 것은 향후 실제 건설투자가 크게 불어날 확률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주택허가면적은 전년동기대비 2010년 1분기 65.7퍼센트, 2분기 75.9퍼센트, 3분기 29.4퍼센트 증가했다.

보금자리 주택의 확대도 건설투자 증가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얼어붙은 민간 건설경기의 공백을 공공물량이 일정 부분 메우는 형국이다. 8 · 29대책의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주택거래 활성화에 따라 주택 경기가 되살아나고 이것이 건설 경기 전체로 확산되는 시나리오다.

비주택 건설부문은 주택에 비해 양호한 성장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선행지표인 건축수주가 2010년 1분기 이후 4분기 연속 증가세다. 이 지표가 4분기 선행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2011년 초부터 착공이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G

글 · 변형주 기자

‘친서민’ 맞춤형 복지 늘린다

올해부터는 최저생계비가 5.6퍼센트 인상되고 우선돌봄 차상위 계층에 대한 찾아가는 복지 서비스가 제공된다. 보육료 전액 지원 확대와 장애인활동지원제 도입 등 맞춤형 복지가 대폭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2011년부터 7대 핵심 과제를 마련해 중점 추진키로 했다. 보건복지부의 ‘2011년도 7대 복지 정책’이란 ▲서민에게 희망을 주는 맞춤형 복지 확대 ▲탈 빈곤 희망사다리 및 나눔 문화 활성화 ▲미래 대비한 저출산 고령화 사회 대책 추진 ▲보건의료 확대 7대 강국 도약 위한 비전 제시 ▲지속가능한 보건 의료시스템 구축 ▲사회복지통합관리망(행복e음) 2단계 도약 ▲보건복지 분야 일자리 향후 2년간 36만 개 창출 등이다.

복지분야에선 최저생계비가 5.6퍼센트 인상되고 ‘우선돌봄 차상위 가구’를 발굴·지원하는 한편 창업이나 취업 등 일자리를 연계해 주는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에 복지부는 올해부터 2012년까지 탈 빈곤 대상을 현재 4만여 명에서 15만명으로 확대해 근로활동 참여를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서초구청

저출산 고령사회 대책의 하나로 공공형 어린이집 시범 사업도 추진한다. 사진은 서초구 영유아 플라자.

노후 생활 안정을 위해 국민연금 수급자 중 의료비 등 긴급한 자금을 우선적으로 지급하는 노후 긴급자금 대여 제도도 도입한다. ‘기초노령연금’ 지급 대상자 선정 기준액도 74만원으로 인상하고 3백87만명에게 확대·지원한다. ‘응급안전 도우미’ 등도 20만명으로 국가 지원을 확대한다.

최저 생계비 인상 · 보육료 전액 지원 확대

장애인 복지는 ‘장애인활동지원제도’를 10월부터 도입, 중증장애인 5만명에 대해서는 신체·가사활동 지원, 방문간호·목욕 등 보건서비스를 제공한다. ‘중증장애인 가정 돌보미 서비스’ 역시 현 6백88명에서 2천5백명으로 확대하고 장애인 일자리 1만 개를 지원한다.

오는 3월부터는 소득이 하위 70퍼센트에 해당되는 92만명에게 보육료를 전액 지원하게 된다. 맞벌이 가구는 ‘부부 소득합산의 25퍼센트를 차감’하는 방식으로 변경되고 다문화 가정은 소득에 관계없이 무상보육이 가능해진다. “보육료 지원에 관한 세부 확정안은 1월 중순경에 발표할 예정”이라는 게 백진주 보건복지부 보육사업기획과 사무관의 설명이다.

양육수당은 1월부터 수혜 아동의 연령을 36개월까지 상향 조정, 지급액도 월 10만~20만원으로 차등 인상하는 등 보육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저소득층 아동을 대상으로 아동 교육 및 복지를 지원하는 ‘드림스타트’ 설치 지역은 1백30여 개로 30여 개, 지역아동센터도 3천2백60개로 3백여 개 늘릴 예정이다.

저출산 고령사회대책으론 7월 중 정부지원 공공형 어린이집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비롯해 임신부 출산진료비를 40만원으로 확대하며 청소년 산모에 대한 임신 중 의료비 지원도 실시한다. G

글 · 박근희 기자

20

조선 DB

한국이 세계 외교무대의 중심으로 나서고 있다. 사진은 지난해 서울 G20 정상회의에서 각국 정상들이 포즈를 취하고 있다.

G20 '서울선언' 이행 글로벌 리더십 강화

"서울에서 괄목할 만한 작업을 해낸 데 대해 이명박 대통령에게 감사드린다."(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아시아 최초로 열린 G20 정상회의인 만큼 중국 입장에서도 협력해야 한다는 마음가짐을 갖고 회의에 임했다."(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

지난해 11월 서울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는 대한민국의 국격을 높이는 역사적 전환점이었다. 세계 주요국가 정상들은 회의의 성공적 개최에 찬사를 아끼지 않았고 주요 외신(外信)들도 대한민국의 '힘'을 자국에 알리느라 여념이 없었다.

새해에도 서울 G20 정상회의의 성공 개최 성과를 이어가기 위한 노력은 계속된다. 정부는 무엇보다 '서울 선언'의 합의 사항 이행에 G20 회원국을 대상으로 외교적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서울 G20 정상회의 당시 가장 큰 이슈가 됐던 환율 문제를 중재한 '예시적 가이드라인' 논의를 올 상반기 중 마무리할 수 있도록 전임 의장국으로서 외교적 노력을 지속하게 된다.

예시적 가이드라인이란 경상수지의 과도한 불균형의 평가를 위한 방안으로, 환율 외에 국가적 · 지역적 환경을 모두 고려한 가이드라인이며 우리나라 주도로 합의된 안이다. 당시 G20 정상들은 예시적 가이드라인 추진에 합의하고 구체적인 향후 일정을 제시해 실무그룹에 직접 개발 작업을 지시했다. 이에 따라 올 상반기 중 G20 재무장관 · 중앙은행 총재들이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모색, 합의된 안을 오는 11월의 프랑스 칸느 G20 정상회의에 제출하게 된다.

우리나라가 주도한 의제인 글로벌 금융안전망과 개발 의제를 완성하기 위한 후속 조치도 이어진다. 글로벌 금융안전망의 하나로 '지역안전망' 구축을 위해 역내 외교적 노력을 강화하며 국제통화기금(IMF)과의 협력도 확대할 예정이다.

개발 의제의 일환으로 합의된 '다년간 개발 행동계획'에 따라 우리나라의 경제개발 경험을 개도국에 전수하는 역할도 강화된다. 직업기술 개발을 위한 국가전략 개선, 개도국의 사회보호 프로그램 강화, 개발지식 공유 활성화 노력 결집 등이 우리나라의 경제개발 경험을 개도국에 전수할 수 있는 영역이다. 이밖에도 서울 G20 정상회의의 성공 개최에 따른 국가브랜드 상승효과를 구체화시키기 위한 방안들이 구체화된다.

우리나라는 G20 정상회의 개최를 통해 새로운 국제질서를 만들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글로벌 지배구조의 전환기에 선 우리나라는 국제적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 이를 통해 국제 이슈를 선점할 수 있을 것이다. 개발도상국의 신뢰할 만한 파트너로 거듭난 우리나라는 G20과 비G20 국가 간의 가교 역할을 통해 국제사회에서 입지도 한층 넓어지고 있다. G

글 · 김성동 기자

청정 에너지 수출 400억 달러 세계 5대 에너지 강국 노린다

현 정부는 지난 3년(2008~2010년)간 약 2조원을 신재생에너지 분야에 지원하였으며 2011년 정부의 관련 예산이 처음으로 1조원을 돌파했다. 2011년 말까지 태양광과 풍력에너지 산업 발전을 위해 2백억원을 투입해 테스트베드 4~5개를 구축할 예정이다.

400

신재생에너지 사업은 정부가 추진 중인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의 '심장'이라 할 만하다. 정부의 녹색성장 정책은 한마디로 '환경을 위협하는 화석연료 위주의 경제성장 구조에서 벗어나 청정에너지를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삼는다'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신재생에너지를 관련 법(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 촉진법)에 11개 분야로 구분해 놓고 있다.

세계 신재생에너지 시장은 연평균 28.2퍼센트씩 성장하고 있다. 금액으로는 2009년 기준으로 1천6백20억 달러 규모였다. 정부는 신재생에너지의 세계시장 규모가 2015년에는 4천억 달러, 2020년경에는 현재 자동차 산업 규모에 맞먹는 1조 달러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특히 중국은 2009년 한 해에만 3백46억 달러를 신재생에너지 분야(태양전지, 풍력 등)에 투자했을 정도로 이 분야에 힘을 기울이고 있다.

지식경제부는 작년 10월 '신재생에너지 발전전략'을 발표하면서 2015년까지 총 4십조원을 투자해 세계 5대 신재생에너지 강국이 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정부의 이 같은 계획대로라면 신재생에너지 산업은 2015년에는 수출 4백억 달러 규모(2009년 46억 달러)의 신 주력산업으로 떠오르게 된다.

현 정부 들어 신재생에너지 산업은 급속한 발전을 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3년(2008~2010년)간 약 2조원을 신재생에너지 분야에 지원하였으며(지난 정부 5년간 지원규모 약 1조4천억원), 2011년 정부의 관련 예산이 처음으로 1조원을 돌파했다.

태양광과 풍력에너지 분야에 집중 투자

지식경제부 조사에 의하면 2009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에는 1백46개의 신재생에너지 제조업체가 있다. 이 가운데 79.5퍼센트가 중소·중견기업이며, 53개 업체가 신규로 창업한 것으로 나타나 신재생에너지 분야가 중소기업의 창업과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는 것이 밝혀졌다.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발전전략'은 우선 태양광과 풍력에너지, 연료전지 분야 산업 육성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기타 바이오에너지 분야도 있지만 아직은 산업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은 편이다. 태양광 산업 분야는 이미 국내에서도 산업 생태계가 상당 부분 형성되어 있다.

강원도 태백 매봉산 풍력단지. 고원휴양 도시 태백시가 저탄소 녹색성장에도 앞장서고 있다.

정부는 태양광 산업 분야를 제2의 반도체 산업으로 조기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정부의 태양광 산업 육성 전략에 장밋빛 전망만 펼쳐진 것은 아니다. 우리의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현주소는 기술에서 앞선 선진국과 규모에서 압도하는 중국 사이에 끼여 있는 형국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우리가 처한 어려운 상황을 창조적인 원천기술 개발과 부품 · 소재 · 장비개발 · 가격경쟁력 확보 등으로 헤쳐 나간다는 복안을 세웠다.

풍력에너지 산업은 우리나라가 가진 조선(造船)과 플랜트 산업의 경쟁력을 바탕으로 단기간에 세계 선두권으로 진입이 가능하다고 예상하는 분야다.

하지만 풍력에너지 분야는 아직 독자적인 기술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수출 기반은 취약한 편이다. 정부는 중소 · 중견 기업에 대해서는 핵심부품을 1백퍼센트 국산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대기업에 대해서는 대형 · 해상풍력 사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동반성장이 목표

정부는 이를 위해 당장 2011년 말까지 태양광과 풍력에너지 산업 발전을 위해 2백억원을 투입해 테스트베드(Test-bed: 시험무대) 4~5개를 구축하고, 2013년까지 부안 · 영광 지역에 1백 메가와트 규모의 해상풍력 단지도 조성키로 했다. 또한 2015년까지 신재생에너지 산업에서 수출 1억 달러 이상을 달성할 '글로벌 스타 기업' 50개를 육성할 계획이다.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5대 강국'이란 비전이 성공적으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향후 추진해야 할 과제가 많다. 먼저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핵심 원천기술을 개발해야 한다.

정부는 이를 위해 신재생에너지 분야에서 '세계 시장을 선도할 10대 핵심 원천기술'을 선정해 2015년까지 1조5천억원을 집중적으로 투자할 계획이다. 10대 원천 기술은 태양광, 풍력, 연료전지, 바이오에너지 등 각 분야에서 전문가의 의견을 참고해 선정했다.

두번째 해결 과제로는 핵심 부품 · 소재 · 장비 기술개발에 대한 지원이다. 세계 태양광 장비의 시장 점유율은 2008년 기준으로 독일이 40퍼센트, 일본이 20퍼센트를 차지하고 있으며 한국은 1퍼센트 미만이다. 정부는 이 분야에 대한 지원 비율을 2012년까지 현재보다 50퍼센트 이상 확대하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는 기술을 가진 중소 · 중견기업을 육성하는 것이다. 정부는 중소 · 중견기업이 개발한 기술과 제품의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올해 안에 4~5개의 테스트베드를 구축하고, 이를 중심으로 중소 · 중견기업의 창업과 성장을 지원하는 클러스터를 만들 예정이다.

정부가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육성 전략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동반 성장할 수 있도록 세심한 배려를 했다는 점도 큰 특징 중의 하나다. G

글 · 이상흔 기자

특성화고 학생 전원 3천1백59억 장학금

3,159

대한민국에는 6백91개의 특성화 고등학교가 있다. 특성화 고등학교는 전문 직업인 · 특정 분야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를 말한다. 새해부터는 모든 특성 고교생이 전액 장학금을 받으며 학교를 다닐 수 있게 된다.

올해부터 특성화 고등학교에 다니는 모든 학생은 수업료 상당의 장학금(연간 1백20만원, 총 3천1백59억원)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교육과학기술부는 현장실습 · 해외인턴십 등에 6백10억원을 투입해 특성화고를 취업에 강한 명품 직업학교로 육성할 계획이다. 특성화 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 중 약 1천명의 우수한 인재를 선발해 해외인턴십 기회를 부여하고, 약 1만명의 학생에게 산업체 체험연수 · 현장실습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특성화고 체제개편을 위해서는 전국 1백개교에 실험실습 기자재 확충, 교원의 산업체 연수 · 교육과정 개발 등을 위한 선진화 지원비를 준다. 또 특성화고-전문대학 연계 프로그램(4년제 통합과정)을 통해 특성화고 학생들이 중견 전문인력으로 육성될 수 있는 길도 열어준다.

이를 위해 특성화고-전문대학으로 구성된 10개 사업단을 선발해 1개 사업단당 10억원을 지원해서 맞춤형 교육과정개발, 학자금 지원, 교원 산업체 연수 등을 패키지로 지원할 계획이다.

교과부에 따르면, 지난 10년 동안 특성화 고등학교의 취업률은 2000년도 51.4퍼센트에서 지속적으로 하락해 2009년에는 16.7퍼센트를 기록했다. 반면, 대학 진학률은 2000년 41.9퍼센트에서 2009년 73.5퍼센트로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과부 진로직업교육과 김환식 과장은 "이번 기회를 통해 우수학생이 특성화고에 진학하여 양질의 직업교육과 함께 충분한 장학금 지원을 받고, 졸업 후 우수한 산업인력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교과부는 지난해 12월 1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 같은 내용들을 담은 '2011년 업무계획'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교과부는 '창의인재와 선진과학기술로 여는 미래 대한민국'이라는 정책 목표를 설정하고, 그간 추진해 온 주요 교육개혁 정책을 현장에 자리 잡게 하며, 선진 과학기술의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는 데 역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가난의 대물림을 끊어주는 교육희망 사다리 구축

교과부는 우선 2011년도 중점업무로 '가난의 대물림을 끊어주는 교육희망 사다리 구축'을 최우선으로 제시했다. 이미 발표된 ▲특성화고(전문계고) 전액 장학금(3천1백59억원) 지원 ▲대학 저소득층 성적우수 장학금(1천억원) 및 전문대 우수학생 장학금(96억원) 신규 도입 ▲든든학자금 대상 확대 ▲저소득층 자녀 4대 교육비 지원 확대 ▲소득 하위 70퍼센트 가구 유아교육비 지원 등이 주요 내용이다.

이와 함께 2011년도 중1, 고1 학생의 경우 학기당 배우는 과목수가 기존 10~13개에서 8개로 대폭 줄어들어 학생들의 시험부담이 경감된다.

아울러 전국 1천5백개 고등학교에 진로 · 진학상담교사를 배치하고, 특성화고의 취업중심 운영을 유도하며, 취업역량 강화사업을 통해 정예화된 취업중심 학교로 육성할 계획이다. 학생들의 과도한 점수경쟁을 완화하고, 2009년 개정 교육과정의 취지

조선 DB

교육과학기술부는 특성화 고교생들의 현장실습·해외 인턴십 등에 6백1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예일디자인고 실내장식디자인과 학생들이 학기 중 만든 작품을 선보이고 있다 (사진 왼쪽). 자동차를 직접 만든 경기자동차과학고 학생들(아래 사진 왼쪽). 인체 모형을 보면서 수업을 하고 있는 염광여자메디텍고 학생들(아래 사진 오른쪽).

조선 DB

조선 DB

에 따라 선택형 교육과정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현행 내신 9등급제 개선을 본격적으로 공론화하기로 했다. 서술형 평가 확대, 수행평가 내실화 등과 접목되면 학교교육 정상화에 시너지가 생길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올해 고등학교에 진학하는 학생이 대상인 '수능 체제개편'도 2월 전에는 확정할 예정이다. 국영수 수준별 시험, 과목 수 축소 등 대입제도가 입학사정관제 중심으로 변화되는 것에 맞춰 수험생의 부담을 덜어주려고 한다.

고등교육 분야에서는 세계 수준의 전문대학 20개교 육성 방안이 새롭게 제시됐다. 취업역량과 재정건전성 등이 뛰어난 상위 20개 전문대를 선정해 교원충원율, 입학정원 규제를 대폭 풀어줘 대학의 질을 한층 업그레이드시킨다는 방침이다.

다양하고 좋은 학교 확산에 주력

산학협력 재정지원사업을 통합해 산학협력선도대학 50개교를 육성한다. 또 올해부터 광역인재양성사업, 산학협력중심대학사업의 필수성과지표에 산학협력 핵심지표를 반영하고, 2012년에는 산학협력선도대학 육성사업(LINC·Leaders in INdustry-University Cooperation)으로 통합·개편하기로 했다.

올 12월에는 국립대학법인 서울대가 출범한다. 교과부는 서울대 법인화법 제정에 따라 서울대를 2011년 12월까지 국립대학법인으로 출범시키고, 다른 거점 국립대들도 여건에 따라 단계적으로 법인화할 예정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정부 출범 이후 줄곧 우리나라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핵심동력으로서 글로벌 인재 양성을 추진해 왔다. 더불어 미래를 이끌어갈 창의적 인재를 키우는 터전이 공교육의 장(場)인 학교가 돼야 한다고 강조해 왔다.

하지만 초등학교에 들어가기 전부터 대학입시를 염두에 두고 사교육을 시키는 현실을 감안할 때 공교육이 제 기능을 발휘하려면 학교교육 체계의 긍정적 변화가 절실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먼저 다양하고 좋은 학교 확산에 주력해 왔다. 기숙형고(1백50개교), 마이스터고(21개교), 자율형 공립고(58개교), 자율형 사립고(50개교) 등으로 분류해 학생들 스스로 자신의 소질과 적성에 맞는 학교를 선택할 수 있도록 고교 다양화를 추진한 것이다.

자율과 책임의 조화를 통한 학교 경쟁력 강화에도 공을 들이고 있다. 학교가 여건에 맞게 교육과정을 편성해 운영하고 그 결과에 대해 책임지는 풍토를 만들기 위해서다. 학업 성취도 평가 전수 실시, 학력 향상 중점 학교 지정과 지원, 학교 정보 공시, 교원 능력 개발 평가 실시 등이 좋은 예다. G

글·서일호 기자

210,000

소형주택 비율 50~80퍼센트로 늘린다

2011년 정부는 21만 호의 보금자리 주택을 신규 공급할 예정이다. 분양 10만 가구, 임대 11만 가구다. 국토해양부는 서민 주거를 안정시키기 위해 차질없는 시행을 강조하고 있다.

2011년 본청약 예정 주요 보금자리주택

지구	단지	주택 신청형	전체 공급호수	사전예약 공급호수	본청약 예정월	입주 예정월
서울강남	A1	59	304	243	2011.7	2013.6
		74	162	129		
		84	336	268		
위례신도시	A1-13	51	662	530	2011.6	2013.12
		54	12	9		
		59	463	370		
	A1-16	51	676	541	2011.6	2013.12
		54	24	20		
		59	502	402		
		75	152	121		
		78	12	9		
		84	436	348		
하남미사	A15	59	295	236	2011.9	2013.11
		74	179	143		
		84	486	388		
	A18	74	457	365	2011.12	2014.4
		84	995	796		
	A28	59	627	501	2011.9	2013.12
		74	288	230		
		84	624	499		
	A8	51	367	293	2011.9	2013.11
		59	308	246		
		74	266	212		
		84	448	358		
	A9	74	224	279	2011.9	2013.11
		84	488	390		

단위 : m^2 / 기준 : 공공분양 / 자료 : 국토해양부

지난해 부동산 시장 최대 화젯거리 중 하나는 보금자리 주택이었다. 주변 시세에 비해 저렴하면서도 쾌적한 아파트를 대량으로 공급한다는 계획에 시장은 술렁거렸고 '내 집'을 꿈꾸는 서민들은 가슴이 부풀었다. 얼어붙은 부동산 시장에서도 보금자리 주택에 대한 관심은 뜨거웠다. 특히 송파구 위례신도시에 조성되는 보금자리 주택의 사전예약에는 '내 집'을 꿈꾸는 서민들이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경쟁률이 15대 1에 육박했다.

정부는 2011년에도 서민주거 안정을 위한 다각적인 사업을 계획하고 있다. 21만 가구의 보금자리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것이 대표적이다. 주택 수요가 많은 수도권에 18만 가구, 지방에 3만 가구가 들어선다. 이 가운데 분양이 10만 가구, 임대가 11만 가구다. 이는 공공물량 역대 최대 규모다. 이 외에도 영구임대단지의 여유부지에 3천 가구의 임대주택을 추가로 건설하는 등 서민 주택 공급을 적극적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다양한 임대주택 개선 사업 '눈길'

2011년 보금자리 주택의 가장 큰 특징은 보다 서민 지향적이 됐다는 점을 꼽을 수 있다. 넉넉하지 않은 서민들의 경제력을 감안해 60평방미터 이하의 소형주택 중심으로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분양 주택의 경우 소형주택의 비율을 종전 20퍼센트에서 50퍼센트로, 10년 분납임대는 60퍼센트에서 80퍼센트로 늘릴 예정이다.

분양가를 내릴 수 있는 방법도 강구하기로 했다. 지구 내 도로와 녹지율을 조정하고 기둥식 구조, 건식공법, 자재표준화 등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공법과 방법을 도입해 총 공사비를 줄이고

조선 DB

보금자리 주택 접수 첫날인 2010년 11월 18일 인천광역시도시개발공사의 접수처에서 청약자들이 상담을 받고 있다.

소득 수준을 입주 기준에 추가해 서민들이 우선 들어올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분양가를 낮춘다고 주거의 쾌적성을 희생시키겠다는 의미는 아니다. 오히려 입주민들의 편의성은 한층 높여나간다. 대단지에 비해 편의시설의 수준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소단지들은 3~4개를 하나로 묶어 통합 부대시설을 마련한다. 이를 통해 서비스의 수준을 한 단계 높이겠다는 설명이다.

자체적인 도시 기능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도 도입된다. 하남 미사 지구처럼 규모도 크고 교통 편의성이 좋은 지구, 다시 말해 상품성이 높은 지구에 대해서는 비즈니스의 기회를 열어주는 것이다. 이 지역의 상업용지에 체인형 중저가 비즈니스호텔을 유치해 외국인 관광객들을 유치한다. 또 의료, 보육, 교육 등 부문의 사회적 기업이 입주할 수 있는 공간을 사전에 확보해 일자리도 창출하고 복지서비스도 제고해 나간다.

보금자리 주택 외에도 임대주택 개선 등 다양한 친서민 주거 정책이 추진된다. 먼저 임대주택단지의 주거환경을 개선한다. 1조1천6백70억원의 예산을 마련, 노후 시설을 개선하고 단지 미임대 상업공간에 사회적 기업을 유치해 일자리와 복지를 동시에 잡는다는 계획이다.

저출산 고령사회에 대한 대비도 곁들인다. 장기 공공임대주택의 5퍼센트는 고령자 전용으로 공급하고 태아도 자녀로 인정, 3자녀 우선공급 수혜 범위를 넓힌다. 신혼부부가 보다 편리하게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전세 및 주택구입자금 지원 자격을 완화하고 노부모 부양가족에 대한 특별공급 대상은 민영주택까지 확대한다.

최근 주택 시장의 틈새로 각광받고 있는 도심 내 소형주택과 임대주택의 공급도 늘려 나간다. 2010년 1만5천호 규모이던 것을 4만 가구로 대폭 확대한다. 1백50세대였던 세대 수 제한 규정을 3백세대 미만으로 완화하는 등 규제를 완화하고 임대주택에 대한 주택기금과 세제지원 요건을 개선해 민간 임대사업 시장에 활기를 불어넣는다는 계획이다.

깐깐한 감시로 전셋값 급등 차단

건설경기 위축과 함께 다소 힘이 빠져 있는 재개발과 뉴타운 등 주택 재정비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2010년 내내 서민들의 가슴을 졸이게 한 현상 중 하나는 '전셋값 상승'이었다. 2011년에도 상황은 크게 호전되지 않을 것이란 우려가 적잖다. 국토해양부는 전 · 월세 시장의 안정화를 위한 대응책을 추진한다. 먼저 지역별 수급 상황을 철저하게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가격 불안 등 이상 신호가 잡히면 바로 대응하기 위해서다. 재개발과 재건축이 특정 지역에 집중돼 전 · 월세 시장이 요동칠 우려가 있을 경우 해당 지자체와 협의해 사업 시기를 조절해 '전세대란'을 사전 차단하기로 했다.

주택공급은 주택 시장의 변화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택지 수급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 적정 수준의 택지를 개발해 나갈 계획이다. 신도시의 경우 수요에 맞도록 주택 공급 물량을 조절할 예정이다. G

글 · 변형주 기자

20인 미만 사업장도 주 40시간 근무

정부가 2011년도 고용부문 목표로 내건 슬로건은 '일자리 나누기'와 '반듯한 일자리 확충'이다. 더 많은 사람이 함께 일할 수 있도록 근무형태를 다양화해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이들이 일을 통해 스스로 일어설 수 있도록 취업지원을 강화한다는 것이 골자다.

280,000

고용시장에 훈풍이 불까? 우리 정부는 지난 2008년 전 세계를 강타했던 경제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해 가면서, 2010년에는 평균 31만 개의 일자리가 증가하는 등 고용사정이 좋아졌다.

정부는 외환위기 이후 실업자 급증으로 둔화한 고용시장의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인식에 따라 오는 2020년까지 연평균 약 24만 개 일자리 창출을 통해 고용률을 70퍼센트까지 높이겠다는 목표다. 하지만 아직 금융위기 이전 고용률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고, 청년실업이 계속되는 등 고용시장이 완전히 회복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2010년부터 민간부문 일자리 증가세

경제위기로 어려움을 겪었던 2009년에는 공공부문의 일자리 창출이 민간부문 일자리 감소를 상쇄했다. 2010년에는 반대로 민간부문 일자리 창출이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감소를 상쇄하는 형태로 고용시장의 회복이 진행됐다. 그 결과 2010년 11월 현재까지 31만1천여 개 일자리가 만들어졌다.

2010년에는 일자리 증가 자체도 큰 성과지만, 일자리의 질적 개선도 있었던 것이 중요한 성과다. 2008년 38만7천여 개, 2009년 38만3천여 개였던 상용직(정규직) 일자리가 2010년 11월 현재 2009년 같은 기간보다 69만5천여 개가 증가하고, 임시 · 일용직 일자리는 지난 3년간 15만여 개, 13만6천여 개에서 올해 18만 6천여 개가 감소했다.

2010년 정부는 일하고 싶어도 일할 기회를 갖지 못한 청년, 여성, 고령자 등 취업취약계층 고용 지원을 역점을 두고 추진했다.

사회적으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청년 고용의 경우 중소기업 청년인턴 사업을 지원하여 청년 구직자들이 우량 중소기업에서 직접 일할 수 있는 경험을 제공하고, 정규직 전환을 지원했다. 국제화 시대에 세계를 무대로 뻗어나갈 국제적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해외인턴, 취업, 봉사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데에도 노력을 쏟았다.

약 1백11개 대학이 기업에서 인사업무 등을 담당했던 전문가 1백47명을 취업지원관으로 채용하여 학생 취업지원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했다.

정부가 2011년도 고용부문 목표로 내건 슬로건은 '일자리 나누기'와 '반듯한 일자리 확충'이다. 더 많은 사람이 함께 일할 수 있도록 근무형태를 다양화해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이들이 일을 통해 스스로 일어설 수 있도록 취업지원을 강화한다는 것이 골자다. 이렇게 창출될 일자리는 28만 개다.

우선 질 낮은 일자리를 양산한다는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안정되고 일자리도 늘리는 '반듯한 시간제 일자리'를 확산시킨다. 무기계약직과 같은 신분으로 고용은 보장되면서 근로시간을 줄인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시간제근로자 고용촉진법'을 2011년에 제정하고, 시간제 근로자를 고용한 기업이 중소기업기본법 등의 지원제도

조선 DB

2010년 12월 22일 오전 서울 SETEC(학여울 무역 전시장)에서 2백84개 공공기관이 참가한 '2010 공공기관 채용 정보 박람회'가 열렸다. 박람회에서는 다음날까지 채용상담, 컨설팅, 모의 면접체험 등이 이뤄졌다.

를 그대로 적용받을 수 있도록 상시 근로자 수 산정기준을 근로자 수가 아닌 근로시간 단위로 바꾸기로 했다. 늘어난 근로자 수 때문에 노무관리 비용이 증가하면 정부가 사업주에게 일정 비용을 지원하기로 했다.

공공부문에서는 정원기준을 '인원'에서 '근로시간'으로 전환하기로 하고, 파트타임으로 일하는 1~3급 고위공무원도 도입하기로 했다. 이들은 종일(8시간 기준) 근무하지 않고 일할 시간이나 날짜를 정해 놓고 해당 시간 동안만 일을 하게 된다. 정년이 보장되고 4대 보험과 공무원연금 등 복지혜택은 기존 공무원과 차이가 없는 정규직이다.

민간부문의 시간제 일자리 창출을 본격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시간제근로자 고용촉진법'(가칭)을 제정하기로 했다. 기업에서 실근로시간을 줄이고 정기적인 교육훈련과 교대제 등을 도입해 신규로 인력을 채용할 경우 1년간 1인당 인건비 최대 7백20만원을 지원하는 '고용창출지원금'도 신설하기로 했다.

'근로시간 축소'도 일자리 목표의 핵심이다.

정부는 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많은 시간을 일하는 우리나라의 근로제도와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힘을 쏟을 방침이며, 이를 통해 일자리를 나눈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를 위해 2011년 7월 1일부터는 주 40시간제를 2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하고, 연차휴가사용 촉진조치 시점도 6개월 전으로 앞당기기로 했다.

또 근로시간 단축을 위해 현재 법정근로시간 외에 주 12시간 이상 연장근로가 가능한 운수업, 물품판매보관업, 금융보험업 등 12개 특례업종(2008년 기준 6백83만명, 전체 근로자의 42.1퍼센트) 수를 축소하기로 했다.

빈곤층이 일을 통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고용지원도 강화할 예정이다. 직업 상담사를 48개 자치단체에 시범배치해 자활능력 평가와 자립지원계획 수립 등을 지원토록 하고, 일할 수 있는 모든 기초수급자에 대한 직업훈련은 무료로 제공할 계획이다.

고용센터에 '취업성공지원팀'을 구성하여 경험 많은 상담직원들을 통해 수급자 개인의 취업의욕과 능력에 맞는 맞춤형 지원을 할 방침이며 일할 수 있는 기초수급자들이 일하지 않는 경우 급여지급 중지 등 복지혜택을 줄이는 조치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청년 실업 해소를 위해서는 정부가 2010년 10월 발표한 '청년 내 일 만들기 1차 프로젝트'를 차질없이 추진해 7만1천 개 이상의 청년 일자리를 만들고, 일과 교육, 훈련-자격 연계, 청년 맞춤형 고용서비스망 확충 등 2차 프로젝트도 추진한다.

일자리 창출 정책의 조정 · 협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고용정책조정회의'도 신설되고, 자치단체의 일자리 사업에 대한 지원도 대폭 확대될 예정이다. 주요 정부시책에 대한 고용영향평가도 확대되어 평가 · 환류 기능이 강화될 전망이다. G

글 · 곽창렬(조선일보 사회부 기자)

해외환자 30만명 유치, 신성장 산업으로

정부는 해외환자 유치를 위해 기존의 미국 · 일본 시장에서 벗어나 카자흐스탄, UAE 등 '신흥 6개국'의 마케팅에 주력한다. 매년 1개 나라를 선정, 양국 교류 채널을 총동원해 집중 홍보할 예정이다. 올해 첫 대상국은 '신흥 자원부국'으로 떠오르는 카자흐스탄이다.

300,000

인구 5백만명의 '도시국가'인 싱가포르가 2009년 한 해 유치한 의료관광객은 64만명(전 국민의 12퍼센트)이다. 싱가포르는 2012년까지 의료관광객을 1백만명으로 늘리겠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추진 중이다. 아시아 의료 시장의 98퍼센트를 장악한 싱가포르는 일찍부터 의료 산업화정책(메디컬 허브 전략)을 펼친 결과 현재 상당한 국부(國富)를 창출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조만간 싱가포르 같은 의료관광 대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 작년 12월 청와대 새해 업무보고에서 "현재 약 8만명 수준인 해외환자 유치를 2015년까지 30만명으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청와대 보고에서 '보건의료산업 7대 강국 비전'을 제시하고, 해외환자 유치뿐 아니라 우리나라 보건의료산업 분야를 '포스트 IT 시대'를 이끌 신성장동력 산업으로 키우겠다는 목표를 내세웠다.

패키지형 병원 플랜트 수출… 의료산업 7대 강국 노려

현재 우리나라 의료 체계나 기술 수준은 선진국 수준이라고 평가된다. 2006년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24개국의 보건의료체계 성과 평가에서 한국은 5위를 차지했으며, 의료서비스 산업의 기술 경쟁력은 미국의 76퍼센트, 일본의 85퍼센트, 유럽의 87퍼센트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우리의 우수한 의료자원을 활용하기 위해 2009년 말 한국의 의료 브랜드로 '메디컬코리아(Medical Korea)'를 내세우고 해외환자 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이번 2011년 업무보고에서 '보건의료산업 7대 강국 비전'을 통해 '메디컬코리아' 브랜드 전략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킨 것이다.

의료산업은 그 규모와 범위가 방대해 IT(정보기술), BT(바이오기술), NT(나노기술) 분야를 망라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HT(Health Technology: 보건의료기술) 개념까지 포함하는 추세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매년 발간하는 〈보건산업 백서〉에는 보건의료 분야를 의약품, 의료기기, 식품, 화장품, 의료서비스, 바이오보건, 한의약 산업 등 7개 분야로 나누고 있다.

복지부 김원종 보건산업정책국장은 "보건의료산업 7대 강국이 되기 위해서는 내수시장에 안주하던 소극적인 전략에서 탈피하여 과감한 해외시장 개척에 초점을 맞춘 정책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당장 2011년부터 중점적으로 추진할 구체적인 정책 방향으로 ▲의료서비스 산업의 수출전략 사업 육성(해외환자 유치 및 병원 플랜트 수출전략) ▲보건의료산업 경쟁력 강화(글로벌 시장 진입전략) ▲보건의료산업 선진화를 위한 인프라구축 ▲보건의료산업의 북미시장 진출 특화전략 등을 내세웠다.

이 가운데 첫 번째인 '의료서비스 산업 수출전략산업 육성전략'의 핵심은 '해외환자 유치'와 '병원 플랜트 수출'로 요약된다.

대구 동산의료원에서 건강검진을 받기 위해 설명을 듣고 있는 파키스탄의 의료관광객들.

특히 해외환자 유치는 기존의 미국 · 일본 · 중국 시장에서 벗어나 러시아, 카자흐스탄, 몽골, UAE, 카타르, 쿠웨이트 등 '신흥 6개국'의 마케팅에 주력한다는 계획이다.

복지부의 해외환자 유치활동 전략에서 눈에 띄는 것은 "매년 1개 국가를 선정한 후 양국 교류채널을 총동원해 환자 유치 홍보를 하겠다"는 대목이다. 첫 홍보 대상국은 카자흐스탄이다. 올해 수교 20주년을 맞는 카자흐스탄은 연평균 10퍼센트의 경제성장을 이루는 신흥 자원부국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의료서비스 관련 일자리 내년까지 36만개 창출

병원 플랜트 수출은 단순한 병원건설뿐 아니라 진출 대상국의 상황에 맞추어 정보화(IT), 의료장비, 의약품, 의료서비스를 통째로 수주하는 것을 말한다.

김원종 국장은 "이런 패키지형 병원 플랜트 수출 방식의 해외 진출은 병원건물만 수주하는 것보다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을 뿐 아니라, 제약이나 의료기기 등 연관산업의 수출을 위한 교두보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중 · 소형 병원을 중심으로 49개 병원이 해외에 진출해 있지만, 복지부는 대형 병원을 포함해 2015년까지 1백개 기관으로 수출 규모를 늘릴 계획이다.

두 번째, '보건의료산업의 경쟁력 강화 전략'은 국내 의료산업이 협소한 국내시장(세계시장의 1.3퍼센트)을 벗어나 글로벌 시장을 공략하기 위한 내용이 주를 이룬다. 제약이나 의료기기 분야의 R&D(연구개발) 지원, 화장품 산업 등의 수출 지원, 바이오 장기개발 같은 재생 의료산업 지원 등을 통해 국내 보건의료산업의 경쟁력을 한층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세 번째, '보건의료산업 선진화를 위한 인프라구축'은 연구중심 병원을 육성하거나,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 등을 통해 지식재산을 창출하고 활용하기 위한 것이다.

마지막으로, '북미시장 진출 특화전략'은 현재 1.1퍼센트에 불과한 국내 보건의료산업의 미국 수출시장 점유율을 2015년까지 3.4퍼센트로 끌어올리겠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김원종 국장은 "북미시장은 전 세계 의약품과 의료기기 산업의 40퍼센트를 차지하고 있다"며 "전담 TF(가칭 콜럼버스 프로젝트 기획단)를 운영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북미 시장을 개척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은 청와대 새해 업무보고에서 "2012년까지 의료서비스 관련 일자리 36만개를 창출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복지부는 돌봄 서비스 등의 사회서비스를 확대하여 이 분야의 일자리를 많이 만들고, 건강관리서비스, 임상시험 등 보건의료 신산업을 육성하여 전문직 청년 일자리도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G

글 · 이상흔 기자

외래 관광객 1000만명 시대 '활짝'

정부는 '외래 관광객 1000만명 시대'의 개막을 원래는 2012년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2010년 8백80만명 정도가 되자 그 시기를 한 해 앞당겼다. 2010~2012년 '한국방문의해' 사업과 2010년 G20 개최가 성과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10,000,000

"올해 외래 관광객 1천만명 시대를 조기에 달성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중국 관광객을 대상으로 관광상품을 개발하고 해외 마케팅에 집중해서 '외래 관광객 1천만명 시대'를 당초 예정보다 1년 앞당겨 올해에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2010년 외래 관광객 수는 8백80만명 정도였다.

이를 위해 정부는 감세와 규제 완화를 통해 관광산업의 가격 경쟁력을 높이고, 종전 정부 주도의 관광 진흥 체계를 민관 파트너십 체제로 전환해서 자연스럽게 민간투자를 활성화시키려 한다. 또 중국인 등에 대한 비자 제도를 개선하고 호텔 · 관광단지 등 주변 여건을 정비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국내에 '가족 · 체류 · 종합휴양' 개념의 세계적인 수준의 대규모 복합리조트를 개발하고, 국내 관광 캠페인을 강화해 국민의 국내 관광 이용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방한외래객 추이

연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방한외래객	515	525	475	582	602	616	645	689	782	880(추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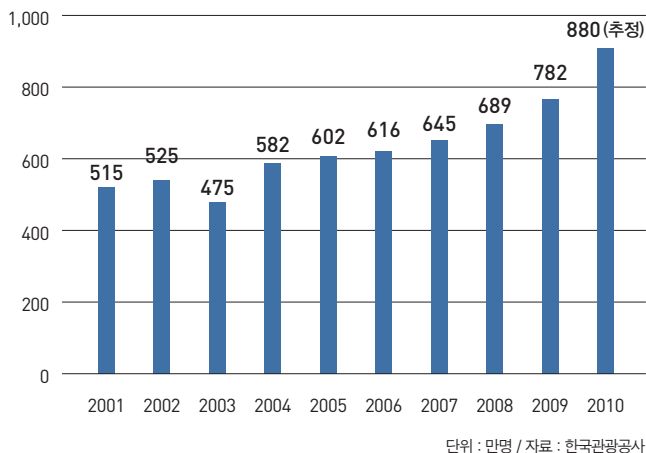
단위 : 만명 / 자료 : 한국관광공사

다양한 관광객 유치 전략 가운데 단연 두드러지는 것은 '마케팅'이다. 문화부는 ▲외래 관광객에게 고품격 볼거리, 즐길거리를 제공하는 특별 이벤트 개최 ▲실제 신규수요 창출을 이뤄낼 수 있는 시장별 차별화된 해외 마케팅 ▲한국에 도착해서 돌아갈 때까지 환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환대서비스 개선 캠페인 ▲한국을 방문했을 때 누릴 수 있는 풍성한 인센티브 제공 등 4대 사업을 화두로 잡고, 관광 마케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일본, 중국 등 주력시장을 대상으로 특별유치판촉단을 파견하고, 관광공사 해외 지사망을 활용한 정기적 사업설명회를 개최하며, 2011년 대구육상선수권 대회 · 2012년 여수세계박람회 등 국내 메가 이벤트에 외래 관광객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공동사업을 펼치기로 했다.

문화바우처 예산 3백47억원으로 늘려

문화체육관광부 조현재 관광산업국장은 "2009년 한국의 관광산업 경쟁력은 세계 31위였지만 2010년 G20 개최를 계기로 국가브랜드가 높아져 경쟁력이 더욱 강해졌다"면서 "2011년 외래 관광객이 1천만명을 돌파하면 세계 20위권에 들게 된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는 국민의 문화 복지가 크게 확대될 전망이다. 문화

부는 2011년 문화바우처(voucher) 예산을 67억원에서 3백47억원으로 늘려 복지 카드 수급 대상자를 35만명에서 1백63만명으로 4.5배 늘리기로 했다. 관광바우처 수혜 대상자도 1만1천여 명에서 4만5천명으로 4.1배 늘리고, 체육바우처 수혜 대상자도 1만3천9백명에서 3만4천여 명으로 커질 전망이다. 문화바우처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에 문화예술 프로그램 관람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해 12월 1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2011년 업무계획'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문화부의 2011년도 정책방향은 '문화로 행복한 대한민국 실현'이다. 이는 2011년도 국정운영 기조인 '공정한 사회'에 맞춰 마련된 것으로 국민의 문화복지를 대폭으로 확대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다. 또 콘텐츠산업과 관광산업을 성장동력화하는 사업도 한층 힘 있게 추진할 예정이다. 2011년도 콘텐츠 수출 목표를 38억 달러(2010년 32억 달러)로 잡고, 고용규모도 53만3천명(2010년 52만1천명)을 목표로 하고 있다.

올 1월 중 범정부적 콘텐츠 정책 총괄 기구인 '콘텐츠산업진흥위원회'를 출범시키고, 2012년까지 글로벌 펀드 2천억원(2011년 8백억원)도 새로 조성하기로 했다. 스마트 환경에 맞춰 3D, 스마트 등 차세대 글로벌 콘텐츠도 집중적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선진 각국과 글로벌 기업들은 콘텐츠 산업을 미래 전략산업으로 인식, 세계 시장 선점을 위한 정책적 지원과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소프트웨어 시장 또한 각종 디지털 기기 등과의 결합으로 새로운 수요가 지속적으로 창출되며 시장을 넓혀가고 있다.

MICE 등으로 외화 획득

정부는 2018년까지 콘텐츠와 소프트웨어 시장에서 약 68조원의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약 2백60억 달러의 수출을 달성한다는 것을 목표로 잡았다.

이를 위해 콘텐츠 분야에서 융합 환경에 적합한 킬러콘텐츠 개발, 유통환경 개선, CT R&D 투자 확대, 전문인력 양성 등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고, 소프트웨어 분야에서는 SW와 제조업, SW와 서비스의 융합을 통해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며, 주력산업의 경쟁력 제고 및 고부가가치화를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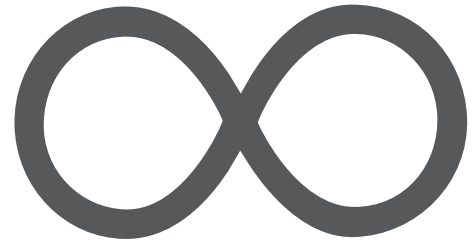
콘텐츠와 마찬가지로 관광은 높은 성장잠재력과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고부가가치 외화획득 산업이다. 특히, MICE 산업의 경우 국제회의, 보상관광, 전시회, 국제행사 등을 통해 대규모 외국인이 참여하는 고부가가치형 관광산업이다.

MICE 산업과 관광시장은 급격히 성장하고 있다. 국제회의 개최건수 및 참가자 수는 연간 30퍼센트씩 성장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국가관광 경쟁력이 아직 낮은 편이나 비즈니스 환경 및 인프라가 높아 관광산업 잠재력이 충분하다. G

글 · 서일호 기자

조선 DB

2010년 10월 부산에서 열린 '최지우 사진전'에 수많은 국내외 관광객들이 몰려와 감상하고 있다.

무한 성장 · 서민생활 안정 선순환 구조 정착

기고 · 현오석 KDI원장

"올 한 해 우리 경제는 어떻게 될까?"

새해만 되면 모든 국민이 가장 관심을 기울이는 주제 중 하나다. 경기전망은 각 경제주체가 소비와 투자 등의 계획을 세우는 기본이 되기 때문이다. KDI는 올 경제성장률을 4.2퍼센트로 전망하고 있다. 국내외 다른 경제예측 전문기관들도 대체로 4퍼센트대로 전망하고 있다. 정부는 5퍼센트 내외의 경제성장률을 예상하면서, 무역거래 1조 달러를 달성하고 물가는 3퍼센트 선으로 억제하며 일자리는 28만 개를 창출하는 것 등을 정책목표로 제시했다. 이는 말 그대로 전망과 목표일 뿐 당연히 달성되는 것은 아니다. 언제든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을 수 있는 각종 변수와 대내외 불확실성들이 산적해 있기 때문이다.

G20 이후 높아진 국가 위상 유지에 역량 집중해야

지난해 우리 경제는 천안함 폭침 등 지정학적인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6.1퍼센트의 높은 성장률을 달성한 것으로 추정된다. 많은 상장기업이 매출과 영업이익에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글로벌 금융위기를 세계에서 가장 빨리, 가장 성공적으로 극복하는 모습을 보였다. 특히 서울 G20 정상회의를 훌륭하게 치러냄으로써 우리나라의 국격(國格)을 한 차원 높이는 전기를 마련했다.

우리의 주요 시장인 중국은 글로벌 의제를 주도하는 선진국 모임인 G7이 아닌 자국이 포함된 G20체제를 적극 활용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실제로 이번 서울 G20 정상회의에서 참여국 간 첨예한 대립으로 글로벌 불균형 문제 등에 있어 합의가 난망했으나, 의장국인 우리의 헌신적인 노력과 더불어 중국도 G20의 역할과 체제 존속의 당위성에 공감하고 적극 협조해 성공적인 합의를 이끌어낸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중국은 13억 인구가 말해주듯 거대한 내수시장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9.0퍼센트 전후의 높은 경제성장률을 지속적으로 기록하고 있다. 이는 세계경제가 중국경제에 대한 의존도를 점점 높여갈 수밖에 없음을 의미하기도 한다. 중국의 부상은 우리경제에 기회이자 축복이기도 하지만 도전과 위협이 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우리 경제의 어두운 측면도 없지 않았다. 한 여론조사 결과는, 세계가 찬탄해 마지않았던 우리 경제의 실적과는 달리 실제 서민들이 느낀 체감경기는 그리 높지 않았음을 보여주었다. 경기회복의 따스한 온기가 윗목까지 고루 퍼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최근 우리 사회의 화두로 등장한 '대-중소기업 동반성장'도 같은 문제의 인식에서 출발했다고 볼 수 있다. 서민과 중소기업이 경기회복의 과실을 함께 향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요즘 정부에서 강조하고 있는 공정사회 구현과도 같은 맥락이 될 것이다.

다행히 정부는 올해 국정운영의 3대 기조를 '잘사는 국민, 따뜻한 사회, 강한 나라'로 잡고 있으며 또한 '건전한 거시경제, 서민경제 활성화, 지속가능한 성장'을 경제정책 운영 목표로 삼고 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유럽 재정위기 등 대외 불확실성을 고려한 유연한 거시정책 운용, 양질의 일자리 창출, 내수와 수출의 균형성장, G20 서울회의 이후 높아진 국가 위상의 유지 및 발전 등에 국가적 역량이 집중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 "정부는 올해 국정운영의 3대 기조를 '잘사는 국민, 따뜻한 사회, 강한 나라'로 잡고 있으며 또한 '건전한 거시경제, 서민경제 활성화, 지속가능한 성장'을 경제정책 운영 목표로 삼고 있다."

여기에 더해 정부는 지난해 고조된 한반도의 지정학적 리스크를 완화시키고, 무역을 확대하는 데 한층 노력해야 한다. 또한 한미 FTA 비준을 조속히 추진하고, 특히 무역이 특정국가에 편중되지 않도록 시장 다변화 노력도 기울여 나가야 한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가 지속적인 성장과 서민생활 안정 등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의 경제시스템을 만들고 정착시켜 나가는 것이 정책의 궁극적 목표가 되어야 할 것이다. G

제2의 인생을 향한
중 · 장기복무 제대군인의 도전,
국가보훈처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다시 한 번, 꿈꾸세요!

다시 한 번, 웃으세요!

제대군인지원센터에서는
5년 이상 중 · 장기복무 제대군인의
성공적인 사회진출을 위해
취업상담 · 직업교육훈련지원 등
다양한 전직지원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서울 제대군인지원센터 Tel. 1588-2339
부산 제대군인지원센터 Tel. 1577-7339
대전 제대군인지원센터 Tel. 1577-2339
대구 제대군인지원센터 Tel. 1577-6339
광주 제대군인지원센터 Tel. 1577-8339

www.mpva.go.kr

엠넷미디어

허각

“나를 봐. 공정사회 맞지”

마이클 샌델 교수의 〈정의란 무엇인가〉가 베스트셀러가 되면서 ‘공정사회’를 이야기하는 사람이 더욱 많아졌다. ‘슈퍼스타 K2’를 통해 공정사회의 대표적인 사례가 된 허각을 통해 그 의미를 다시 한 번 되새겨본다.

‘슈퍼스타 K2’를 통해 공정사회의 대표적인 사례로 떠오른 허각.

'슈퍼스타 K2'의 우승자 허각(26)이 지난해 12월 17일 청와대에서 열린 '방송통신위원회 2011년 업무보고'에 참석해 화제가 됐다. 이날 그는 방송통신위원회 업무보고에 초등학교 교사, 벤처기업 사장 등과 함께 토론자 자격으로 참석한 것이다.

환풍기 수리공 출신으로 '슈퍼스타K2'에서 역전 드라마를 일궈낸 허각은 '공정사회'의 대표적 사례로 초대됐다고 한다. 그는 이 자리에서 이명박 대통령의 화두인 '공정사회'를 거론했다. 허각은 "제가 대표적으로 공정사회의 혜택을 본 사람"이라며 "공정사회라는 것은 꿈이 있는 사람에게 꿈을 실현할 수 있는 공정한 기회를 주는 것이고 노력하면 그 기회가 오는 사회"라고 밝혔다.

허각은 청와대를 방문한 '인증샷'도 남겼다. 사진 속 그는 말끔한 슈트에 보타이(나비 넥타이) 차림이다. 허각은 트위터에 '청와대 잘 다녀왔습니다! 멋진 곳이었어요. 신기해!'라는 후기를 남겼다.

허각이 1백34만 대 1의 경쟁률을 실력으로 뚫고 우승했던 '슈퍼스타 K2' 최종 결승 방송은 케이블 사상 최고 시청률을 기록했다. 그를 비롯해 어려운 환경에서도 꿈을 포기하지 않은 출연자 개개인의 도전정신, 성실한 자세, 경쟁 속에서도 다른 사람과의 조화에 힘쓰는 모습은 시청자들에게 감동을 주기에 충분했다.

우승자 허각은 재능과 목소리만으로 공정한 경쟁을 통해 성공을 일궜다는 점에서 공정사회의 대표적 사례로 떠올랐다. 환풍기 수리공에서 수퍼스타가 된 허각의 인생역전 스토리는 영국의 오디션 프로그램 '브리튼즈 갓 탤런트'를 통해 휴대폰 외판원에서 세계적인 팝페라 가수로 우뚝 선 폴 포츠와 비교되곤 한다. 그는 이런 세간의 평에 "감사한다"면서도 "아직 제 주변에는 힘든 일을 하면서 음악 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다. 감히 폴 포츠와 비교되는 건 부담스럽다"고 밝혔다.

허각은 열네 살 때부터 무대에서 노래를 불렀다고 한다. 그의 고향인 인천 지역에 새로 문을 연 쇼핑몰의 노래자랑 이벤트 대회였다. 허각은 김성집의 노래 '기약'을 불러 우승을 차지했다.

노래를 사랑한 허각은 고등학교를 중퇴했다. 그는 대학교에 진학해서 공부를 하는 것보다 무대를 누비며 노래하는 게 좋았다. 하지만 당시 아버지는 허락하지 않았다. 열일곱 살 되던 해에 그는 자신이 좋아하는 노래를 위해 자취를 시작했다. 인천, 부천, 서울을 넘나들며 공연에 참가했다. 그는 당시를 회상하며 "연예인이 되고 싶다는 꿈은 없었다. 그저 자유롭게 관객들 앞에서 노래하는 행사 가수가 마냥 좋았다"고 밝힌 바 있다.

가수의 꿈 이루고 가족도 화목해져

'슈퍼스타 K2'에서 우승한 허각에게도 어려운 시기가 있었다. 허각은 몇 년 전 서울 명동의 한 쇼핑몰에서 열린 대회에서는 예선 탈락하는 등 굴욕을 맛보기도 했다. 자존심이 상해 이를 악물고 연습했다. 연습이라고 해봐야 노래방에서 노래 부르는 게 전부였지만 말이다. 허각의 노래 연습을 도와준 사람은 동네 형이었다. 그 동네 형은 허각과 쌍둥이 형(허공)의 노래를 듣는 게 좋다며 3년 동안 거의 매일같이 노래방에 데리고 다녔다. 노래 부르는 건 좋았지만 행사 무대가 점점 사라지면서 허각은 먹고살 길을 걱정해야 했다. '노래를 그만둬야 하나' 생각하던 시점에 '슈퍼스타 K2'를 만난 것이다.

그는 '슈퍼스타 K2' 출연을 통해 꿈을 이뤘고 또 가족이 화목해져 좋다고 한다. 가족이 뿔뿔이 흩어져 살았는데 아버지, 형과 함께 살 수 있게 된 것이다. 우승 상금 2억원은 전셋집 얻는 데 쓰기로 했다.

'슈퍼스타 K2'의 심사위원 이승철은 1위가 된 허각의 노래를 심사할 때 '선천적인 보컬로 타고났다'고 했다. 가수로서의 탁월한 실력을 가진 허각은 장르 중에서는 발라드를 좋아한다. 그중에서도 이승철, 성시경의 은은한 노래를 좋아한다.

그는 "이승철 선배의 조언처럼 저도 공연을 위주로 하는 가수가 될 것입니다. TV무대를 통해 열심히 활동하는 것도 좋지만 공연장에서 가까이 다가가는 가수가 되고 싶습니다"라고 말한다.

허각은 "꿈을 꿀 수 있게, 그리고 꿈을 이룰 수 있게 해준 게 바로 노래입니다. 아직 갈 길이 멀지만 노래는 언제나 저를 행복하게 만들어줄 거라 믿어요"라며 "열네 살 이후 단 하루도 노래를 쉰 적이 없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것이고요"라고 노래에 대한 애정을 밝혔다. G

글 · 서일호 기자

〈라스트 갓파더〉로 할리우드 시장 다시 노크한 심형래

내가 누구냐고? "글로벌 영구다"

지난 12월 29일 개봉한 영화 〈라스트 갓파더〉의 심형래(53) 감독은 1980~1990년대 '띠리리 리리리'를 노래하는 '영구' 캐릭터로 아이와 어른 모두 배꼽이 빠지게 만들었다. 그런 그가 세계를 웃기기 위해 10여 년 만에 '영구'로 다시 돌아왔다. 그의 슬랩스틱 코미디는 국내 추억의 개그를 넘어서 전 세계를 웃음의 도가니로 몰아넣고 있다.

과거 국내에서 인기를 끌었던 '영구' 캐릭터를, 지금에 와서, 그것도 세계의 영화 시장에 내놓기가 쉽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심형래 감독은 "찰리 채플린의 코미디를 지금 본다고 해서 재미없는 것이 아니듯이, 영구 캐릭터도 마찬가지"라며 자신감을 보였다. 그의 말처럼 '영구'라는 캐릭터는 전 세계인의 공감을 얻으며 웃음을 자아내고 있다. 처진 눈썹과 어눌한 말투의 '영구'가 세계 속 '미친 존재감'으로 떠오르고 있는 것이다. 이런 비결은 과연 어디서 온 것일까?

먼저 심 감독은 세계인의 공감을 얻기 위해 슬랩스틱 개그를 기본으로 하고 세계적으로 유명한 조직인 마피아를 소재로 삼았다. 영화 〈라스트 갓파더〉는 미국 최대의 마피아 조직 대부의 숨겨진 아들 '영구(심형래 분)'가 후계자로 지목되면서 벌어지는 해프닝을 담은 작품이다.

그러나 코미디 장르로 할리우드에 진출하는 건 쉽지만은 않았다. 심 감독은 "처음 할리우드 영화 관계자들의 반응은 싸늘했다. 전혀 웃지도 않았고 영구가 누구인지, 왜 웃어야 되는지도 몰랐다"며 당시 어려움을 토로했다. 그러나 그는 우리의 슬랩스틱을 살려보자는 생각에 2대8 가르마를 하고 영구 특유의 손동작인 '띠리리 리리리'를 보여주었다. 그때야 웃음이 터졌다. 이렇게 시작된 〈라스트 갓파더〉는 단순한 코미디가 아니다. "새해를 맞이해 자녀와 함께 볼 수 있는 영화를 만들고 싶었다"는 심 감독의 말처럼 웃음과 감동이 있는 가족 영화다.

〈라스트 갓파더〉에 대부로 출연한 배우 '하비 케이틀'의 캐스팅 이야기도 유명하다. 하비 케이틀은 〈저수지의 개들〉, 〈스모크〉 등에 출연한 할리우드의 연기파 배우다. 처음에 그는 〈라스트 갓파더〉를 '대부4'로 착각해 대본을 받았다고 한다. 대본을 읽어본 후 그는 자신의 늦둥이 아들에게 남겨주고픈 영화라고 생각해 이번

출연을 결정했다고 한다.

심형래 감독의 세계를 향한 도전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2007년작 영화 〈디워〉는 블록버스터 장르에서 한국 영화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었다는 호평을 받았다. 그렇지만 국내 영화가 세계 시장으로 진출하기란 쉽지는 않다.

심 감독은 〈라스트 갓파더〉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와 콘텐츠진흥원의 적극적인 도움이 있어서 가능했던 영화"라고 밝혔다. 문화부와 콘텐츠진흥원은 이번 영화 제작에 있어 기획 단계부터 시나리오 작업, 배급까지 국내 콘텐츠 산업의 글로벌 육성을 위한 아낌없는 지원을 보냈다.

심 감독은 "할리우드의 경우 자국 영화에는 개방적이지만 외국영화에는 폐쇄적"이라고 설명한다. 아무리 좋은 시나리오와 아이템을 갖고 있어도, 제작사와 감독이 그 작품을 제작할 수 있는 역량이 증명되지 않으면 어렵다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심 감독은 〈용가리〉와 〈디워〉를 제작했던 경력이 많이 도움이 됐다고 한다. 심 감독은 이제 "기획만 좋으면 해외 시장에 영화를 얼마든지 팔 수 있다"고 자신 있게 말한다.

"문화체육관광부 도움이 있어 가능했다"

심 감독은 해외 시장을 노리는 만큼 이번 영화에 많은 공을 들였다. 특히 전작 〈디워〉에서 논란이 됐던 배우의 연기력과 시나리오 구성력은 할리우드 영화 관계자들이 참여해 대폭 보강됐다. 할리우드 배우들이 대거 출연해 개봉 전부터 화제를 모았을 정도다. 심 감독은 "한국 사람에게만 통하는 코미디를 가지고 해외 시장을 노리는 것은 바보 같은 짓이다. 영구라는 캐릭터에 대한 사전지식이 없는 사람이 봐도 웃을 수 있는 코미디를 보여주기 위해 노력했다"고 밝혔다.

'글로벌 영구'로 돌아온 영구는 캐릭터를 대폭 변화시켰다. 먼저 옷이 달라졌다. 한복이 아닌 양복을 입는다. 그러나 짧은 재킷, 짧은 바지 차림으로 기존의 어수룩한 영구 이미지는 잘 살렸다. 머리 모양도 바꿨다. 땜통이 있는 더벅머리에서 2대8 가르마로 빗어 넘긴 말쑥한 헤어스타일이다.

심 감독은 "저의 트레이드마크인 영구를 가지고 세계시장에 승부를 건다고 했을 때 반신반의한 사람들이 많았다. 그러나 시도도 하지 않고 안된다고 말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은 없다"고 말한다. 그는 영구 캐릭터의 무한한 가능성을 보고 있다. "영구가 수퍼맨이 되는 이야기, 영구가 경찰로 활약하는 이야기도 만들 수 있다. 우리라고 못할 건 없다"는 그에게서 끝없는 열정이 느껴졌다.

영구 캐릭터가 세계 시장에서 어느 정도 흥행할지 아직은 미지수다. 그러나 할리우드 현지 촬영 시 〈라스트 갓파더〉의 촬영 현장은 늘 웃음바다였다고 한다.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바뀌는 것도 좋지만 한국에서 인기를 끌었던 캐릭터를 세계화시키는 작업 역시 중요하다고 본다"고 말하는 심형래 감독. 그는 세계 시장에서 한국 영화의 위상을 바꾸고 있는 중이다. G

글 · 이제남 기자

사진·영구아트무비

영화 〈라스트 갓파더〉는 할리우드 유명 배우들이 출연해 화제가 됐다. 왼쪽 사진은 마피아 대부역을 맡은 연기파 배우 '하비 케이틀'과 그의 숨겨진 아들인 '영구'역의 심형래 감독이 다정한 한때를 보내고 있는 영화 속 한 장면.

중증장애인 특별채용으로 5급 사무관 된 지정훈씨

"장애는 불편함일 뿐 자신감으로 이겨낼 수 있어요"

중증장애인 특별채용'으로 우리나라 장애인들에게도 최고위 공직자가 될 가능성이 열렸다. 지체장애인 지정훈씨는 2010년 이 특채를 통해 합격한 첫 5급 공무원이다. 특허청 심사관으로 새출발하는 그를 만났다.

특허청

"한국에서 시각장애인은 안마사나 역술인밖에 할 수 없었지만 나는 4성 장군에 해당하는 미국 연방정부의 공직자로 이 자리에 섰다."

미 백악관 국가장애인위원회 정책차관보를 지낸 강영우 박사(시각장애인)가 지난 2006년 백악관에서 한 연설이다. 하지만 이제 이 연설을 수정해야 할 것 같다. '중증장애인 특별채용'으로 우리나라 장애인들도 최고위 공직자가 될 가능성이 열렸기 때문이다.

지리산 종주, 홀로 상경 아르바이트도

"제가 잘해야 나중에 다른 사람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책임감이 큽니다."

새해부터 특허청 정보통신심사국에 5급 사무관으로 근무하는 지정훈(32)씨의 소감이다. 그는 검색기술, 프로그래밍 언어 등 컴퓨터와 관련된 특허기술을 심사하는 업무를 맡게 된다. 컴퓨터공학 박사 출신인 그는 "전공과 일치하는 분야를 맡게 돼 다행"이라며 "사명감을 가진 공직자가 돼 좋은 선례를 남기고 싶다"고 했다.

지씨는 뇌성마비 후유증으로 인해 팔이 불편한 3급 지체장애인이다. 돌도 지나기 전에 일어난 일이었다. 하지만 그의 부모

는 좌절하지 않았다. 그의 부모는 '장애는 받아들이되, 스스로 극복하기'를 강조했다.

어차피 사회에선 일반인과 경쟁해야 하는 만큼 힘들어도 견뎌야 한다는 것이었다. 어린 아들에겐 벅찬 선택이었지만, 결국 그게 옳았다. 지씨는 "부모님께서 '또래들과 어울려야 많이 배울 수 있다'면서 일반학교로 보내셨다"며 "그 덕에 컴퓨터 전문가가 되겠다는 인생의 목표를 정할 수 있었다"고 했다.

"팔이 불편하니까 글씨가 삐뚤삐뚤 써지고 그나마 알아보게 쓰려면 시간이 더 오래 걸렸어요. 수업 내용을 적어야 나중에 공부하고 시험도 볼 수 있으니까 이를 꽉 물고 오기로 썼죠."

공부를 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것은 필기

지씨는 재활훈련에 몰두했다. 근력 운동을 통해 팔에 힘을 길렀고, 맨손 대신 컴퓨터 자판으로 글 쓰는 연습을 했다. 그 덕에 자판과 마우스를 자유자재로 쓸 수 있게 됐다. 그는 "컴퓨터로 업무를 보는 데 전혀 지장이 없다"고 말했다.

1998년 경성대학교 컴퓨터공학과에 입학했다. 그는 "자판과 마우스를 쓸 줄만 알았지 컴퓨터를 전혀 모르는 '컴맹'이었기에 다른 동기들보다 2배, 3배 노력하는 길밖에 없었다"고 했다. 4년 내내 아침 9시부터 꼬박 12시간 동안 실험실에 틀어박혀 지냈다. 2005년 석사학위를 받았고 부산대 컴퓨터공학과에서 5년 반 만에 박사학위를 땄다.

그에게 장애란 '약간의 불편함'일 뿐이다. "어떤 일을 할 때 20퍼센트 정도의 노력이 더 필요한 겁니다. 장애가 눈에 보이지 않는 벽이 될 수도 있지만, 그것은 주변에서 바라보는 분들의 편견일 뿐입니다. 불편함도 익숙해지면 편해질 수 있습니다(웃음)."

그는 자신이 "긍정적"이라고 했다. 그러곤 "장애를 떠나서 모든 일을 할 때 자신감이 가장 중요하다"고도 말했다. 그의 세상을 향한 끝없는 도전일지를 보면 이 말이 가슴에 와 닿는다. 대학 1학년 때 발톱이 빠지는 고통을 참아내며 친구들과 지리산 종주를 해냈고, 2학년 때는 휴학하고 홀로 서울에서 자취하면서 효성중공업 개발팀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다. 2007년 삼성전자가 주최한 휴먼테크 논문대상에 응모해 동상의 영예를 안았다.

당시 논문대상은 개인정보를 철저히 숨긴 블라인드 심사가 이뤄졌는데 수상자 발표 때 심사위원들은 지씨가 장애인임을 안 후 깜짝 놀랐다고 한다. 대학원 졸업반이었던 2009년 3월, 부산시교육청에 있는 컴퓨터 관련 '정보영재원'에서 학생들에게 컴퓨터를 가르치기도 했다. 무슨 일에서든 주도적으로 해내고야 마는 성격이어서 학창시절 그의 별명은 '선수'였다.

시각장애인 등 함께 합격한 동료 14명은 '희망'의 증거

공무원이 된 것 또한 지씨에게 새로운 도전이다. 졸업을 앞두고 취업을 준비하던 중 행정안전부의 '중증장애인 특별채용시험' 공고를 보게 됐다. 순간 '12년 동안 공부해 온 지식을 활용해 보자'는 생각이 들어 그의 가슴이 떨렸다고 한다. 지씨는 자신이 "첫 이력서에 합격한 억세게 운 좋은 케이스"라고 웃었다.

지씨와 함께 중증장애인 특채에 합격, 올해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환경부 등 13개 부처에 배치될 사람은 총 14명이다. 복지시설에서 컴퓨터를 이용한 장애인 자활사업을 전개해 온 시각장애인 청년, 휠체어를 끌고 중증장애인을 방문해 컴퓨터강의를 해온 여성강사, 중소기업에서 근무하다 6-시그마 등 기업혁신 활동을 중소기업청에 적용해 보겠다는 지체장애 1급 장애인 등 경력도 다양하다. 이들 모두는 다른 장애인들의 '희망'의 증거가 됐다.

특히 지씨는 '중증장애인 출신 첫 5급 공무원'이기에, 주변의 관심이 쏟아져 부담스러울 법도 하다. 지씨는 "연수원에서 교육을 받으면서 공직자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사명감'이라는 생각이 들었다"며 "전공을 살려서 국가나 국민의 이익에 보탬이 되는 좋은 공직자가 되겠다"고 했다. 이런 '좋은 특채'들이 이어진다면 앞으로 10년, 20년 후쯤 우리나라에서도 '한국판 강영우 박사'가 탄생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해 볼 일이다. G 글 · 박란희 객원기자

■ 정부의 소수자 배려 정책

정부는 2008년부터 고용여건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공직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매년 '중증장애인 일괄채용시험을 실시하고 있다. 이 밖에도 소수자 배려 정책으로 ▲장애인 고용 의무제 ▲지역인재 추천 채용제 ▲지방인재 채용 목표제 등을 추진하고 있다.

장애인 고용 의무제는 2012년까지 중앙행정기관 의무 고용률 3%를 달성하는 정책이다(2009년 말 기준 채용현황은 2.35퍼센트). 2006년 시행된 지역인재 추천 채용제는 학과 성적 상위 10퍼센트 이상 대상자를 중심으로 지역 대학의 추천을 받아 1년의 견습기간을 거쳐 7급으로 임용한다. 지방인재 채용 목표제는 행정 · 외무고시 합격자 중 서울을 제외한 지방 소재 대학 및 대학 이하 학교의 졸업자가 20퍼센트에 미달하면 발동된다. 지방학교 출신이면 기존 합격선보다 1점 낮은 합격선의 적용을 받는다.

열아홉살 손흥민, 박주영 빈자리 부탁해

연합DB

지난해 12월 18세 나이로 A매치 대표팀에 발탁된 손흥민.

'젊은 피'로 무장한 대한민국 축구 대표팀이 신묘년 벽두부터 아시아 정복에 나선다. 월드컵 7회 연속 출전 등 아시아 축구의 맹주(盟主)로 군림해 온 한국은 유독 아시안컵과는 인연이 멀었다. 7일 카타르 도하에서 개막하는 아시안컵 축구에 한국은 무려 51년 만에 정상 탈환을 노린다.

한국 축구가 한층 젊어졌다. 1월 7일 카타르 도하에서 개막하는 아시안컵에 출전할 축구 대표팀의 면면을 보면 2010남아공월드컵 때와는 다른 '풋풋함'이 느껴진다. 조광래 대표팀 감독이 지난해 12월 24일 발표한 아시안컵 최종 엔트리 23명의 평균 연령은 25세이다. 남아공월드컵 대표팀(평균 27.5세)과 비교하면 2.5세가 젊어진 셈이다. 아시안컵 우승도 중요하지만 2014년 브라질 월드컵을 대비하기 위한 조광래 감독의 '장기 포석'임을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다.

23명의 최종 엔트리 중 가장 눈에 띄는 선수는 올해 19세가 된 손흥민(함부르크)이다. 지난해 독일 분데스리가에 데뷔한 손흥민은 '잠재력'이 아닌 '실력'으로 조 감독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손흥민이 "박지성, 박주영, 이청용 등 현 대표팀 주축 선수들의 대를 이을 재목(材木)"이라는 평가였다.

'실력'으로 조광래 감독 마음 사로잡아

조 감독은 "처음엔 잠재력을 확인하고 싶어 제주도 전지훈련에 불렀다. 그러나 직접 평가해 보니 기술적으로 국내 선수들보다 부족함이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자체 평가전을 해 보니 손흥민은 수비를 따돌리는 움직임이나 순간적인 스피드가 어린 선수라고 보기 어려울 정도였다. 문전에서의 슈팅, 뒷공간으로 재빠르게 들어가는 능력도 뛰어났다"고 말했다.

윤빛가람(21 · 경남), 지동원(20 · 전남) 등 K리그를 대표하는 두 명의 신예도 무난히 아시안컵 티켓을 얻었다. 소속팀에서 이미 사제(師弟)지간으로 지냈던 윤빛가람은 빠른 템포와 패스를 강조하는 '조광래식 축구'가 이미 몸에 익숙하다. 어린 나이답지 않게 미드필드에서 공수 조율과 탁월한 패스 능력을 갖췄다. 지난해 8월 나이지리아와의 A매치 데뷔전에서 골까지 넣으면서 조광래호의 황태자라는 별명도 얻었다.

지동원은 큰 키(1m86)에도 유연하고 민첩하다. 최전방 스트라

연합DB

51년 만에 아시안컵 축구대회 우승에 도전하는 조광래호가 출국하기에 앞서 인천공항에서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이커와 양쪽 날개, 공격형 미드필더까지 소화할 정도로 활동 반경이 넓다. 2010년 중국 광저우 아시안게임에서는 박주영과 함께 최전방 투톱으로 활약했다. 지동원의 플레이를 지켜본 조 감독은 "지동원이 최전방에서 제 몫을 해내면 다른 공격수의 움직임이 상대적으로 자유로워진다"고 말했다.

공격수 유병수(23 · 인천)와 김신욱(23 · 울산)도 최종 엔트리에 포함됐다. 조 감독은 젊은 공격진에 거는 기대를 묻자 "골을 더 많이 넣기 위해서 뽑았다. 우승을 하려면 결국 공격이 강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최종 엔트리에 이름을 올렸던 간판 스트라이커 박주영(26 · AS모나코)이 무릎 부상으로 출전을 포기해 그 공백이 아쉽다.

반세기 동안 들지 못한 우승컵

한국 축구의 '심장'인 박지성(30 ·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을 비롯해 이영표(34 · 알 힐랄), 조용형(28 · 알 라이안), 이청용(23 · 볼턴), 기성용(22 · 셀틱) 등 남아공월드컵 주전들은 아시안컵에서도 변함없이 중용될 예정이다. 구자철(22 · 제주), 김보경(22 · 세레소 오사카) 등 광저우 멤버들은 아시안게임 동메달의 아쉬움을 털어버리고 한국 축구가 아시아 최강의 면모를 되찾는 데 힘을 보태겠다는 의지를 다지고 있다.

특히 아시안컵을 끝으로 대표팀을 은퇴하겠다는 박지성의 일거수일투족은 축구 팬은 물론 대표팀 내부에서도 초미의 관심사다. 조광래 감독도 "선수의 의견을 존중해야 하지만, 만나서 내 생각을 전달할 것이다. 큰 무리가 가지 않는다면 2014년 월드컵까지 뛰었으면 좋겠다"며 은퇴를 만류할 뜻을 비쳤다.

월드컵 7회 연속 출전 등 아시아 축구의 맹주(盟主)로 군림해 온 한국은 그동안 아시안컵과는 인연이 멀었다. 1956년, 1960년에 열린 1 · 2회 대회에서 연속 우승을 차지한 이후, 두 차례 준우승이 있었지만 반세기 동안 우승컵을 들지 못했다.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 4개국이 공동 개최한 2007년 대회에선 조2위(1승1무1패)로 8강에 올랐고, 4강에서 이라크에 승부차기 끝에 졌다. 박지성, 이영표, 설기현 등 프리미어리거들이 부상으로 빠지는 등 정상 전력은 아니었지만, 대회 내내 부진한 경기가 계속됐다. 당시 대표팀을 이끌던 핌 베어벡 감독이 현지에서 사퇴를 표명했고, 일부 선수들이 대회기간 중 숙소를 이탈해 술을 마신 사실이 들통나 팬들의 질타를 받기도 했다.

26일 아랍에미리트(UAE)로 출국한 대표팀은 지난해 12월 30일 시리아와 평가전을 치르고 1월 초 UAE 현지 클럽팀을 상대로 마지막 실전 감각을 가다듬는다. 1월 6일 대회 개최지인 카타르 도하에 입성해 바레인(10일), 호주(14일), 인도(18일)와 조별리그 C조에서 맞붙는다.

조광래 감독은 "첫 상대인 바레인부터 결승전이라는 각오로 임하겠다. 월드컵 등에 밀려 그동안 아시안컵에 다소 소홀한 부분이 있었지만, 이번엔 선수들에게 정신무장을 강조했다. 기대해 달라"는 출사표를 던졌다. G

글 · 진중언 (조선일보 스포츠부 기자)

카타르 아시안컵 대표팀 명단

GK 정성룡(성남) 김용대(서울) 김진현(세레소 오사카)
DF 곽태휘(교토) 이정수(알 사드) 조용형(알 라이안) 이용래 황재원 (이상 수원) 이영표(알 힐랄) 최효진(서울) 차두리(셀틱) 홍정호(제주)
MF 박지성(맨체스터 유나이티드) 기성용(셀틱) 이청용(볼턴) 김보경 (세레소 오사카) 염기훈(수원) 윤빛가람(경남) 구자철(제주) 손흥민(함부르크)
FW 지동원(전남) 유병수(인천) 김신욱(울산)

구석구석 아름다운 대한민국 “겨울에도 갈 곳 참 많아요”

겨울 방학과 겨울 휴가 시즌이 시작됐다. 비행기를 타고 멀리 해외여행을 가는 것도 좋지만 우리나라 구석구석 명소를 다니며 아름다운 경치, 맛있는 음식, 역사적인 의미 등을 음미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 추위에 오그라든 지역경기 활성화에도 도움이 된다면 신묘년 새해의 ‘두 마리 토끼 잡기’가 될 것이다.

이경호 (C영상미디어 기자)

이번 겨울방학에는 눈꽃열차를 타고 겨울바다의 정취를 느껴보자.

경기도 분당구 서현동에 사는 이승연(37)씨는 아이들 방학을 맞아 가족 여행을 계획하고 있었다. 일단 장소는 국내로 정했는데, 어디로 가야 할지가 막연했다. 그래서 주위 사람들로부터 의견을 구하다가 한국관광공사 홈페이지(www.visitkorea.co.kr)를 발견했다. 이씨는 “사이트에서 무주 덕유산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발견하고 그곳으로 가기로 결정했다”면서 “한국관광공사와 SK에너지가 공동으로 초대하는 이벤트 행사에도 응모해볼 생각”이라고 말했다.

요즘 무주 덕유산의 설경이 절정이다. 특히 설천봉에서 향적봉까지 이어지는 나무계단을 따라 상고대와 눈꽃이 화려하게 핀다. 마치 나무에 밀가루를 뒤집어씌워 놓은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하얀 산호처럼 보이기도 한다.

덕유산 상고대가 다른 산에 비해 유난히 많이 피는 것은 산 아랫녘으로 금강 줄기가 흘러 습도가 높기 때문이다. 낮이면 햇살을 받은 금강에서 수증기가 피어올라 눈구름이 되고 오후 늦게부터는 덕유산에 눈이 되어 내린다.

국내여행 알리기 행사는 한국관광공사 국내마케팅실 총괄로 공사 홈페이지의 이벤트 코너를 통해 진행된다. 2010년 12월 30

일 오픈된 이벤트 코너에서는 내나라 먼저여행 추천 여행상품, 개별적으로 가볼 만한 관광지, 한국관광공사가 민간 업체와 공동으로 진행하는 지방 관광지 초청 이벤트, 청소년이 있는 가족에게 적합한 청소년용 관광 코스 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수 있다.

한국관광공사 지정 공식여행사에서 추천한 엄선된 국내여행 상품정보가 제공되고, 해당 상품 이용 시 각종 혜택이 주어진다. 한국관광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해당 상품을 구매한 고객에게는 최대 50퍼센트의 할인 혜택이 제공되고, 그 외에도 푸짐한 경품 혜택이 기다리고 있다. 한국관광공사 국내 마케팅팀 신정헌 대리는 "구제역이 발생한 지역은 최대한 배제했다"면서 "공사 홈페이지를 이용해서 여행상품을 선택할 경우 10퍼센트에서 최고 50퍼센트까지 할인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겨울 특집 '추천 가볼 만한 곳' 정보 제공

패키지 상품 이용이 망설여진다면 개별 관광객을 위한 각종 정보를 참고하자. 먼저 한국관광공사는 겨울 특집 '추천 가볼 만한 곳' 정보를 제공한다. 국내 방방곡곡을 다녀 본 여행작가들이 자신 있게 추천하는 겨울 관광지들이다. 미리 다녀온 여행작가들의 소감, 관련 사진들을 볼 수 있으니 겨울 추억을 만들 관광지를 고르기에 그만이다.

또한 청소년이 있는 가족들은 가족여행을 하면서도 교육적 효과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그래서 한국관광공사에서 개발한 57개의 청소년 관광 코스 정보도 함께 제공한다.

수학여행 코스로 이용할 목적으로 개발되었기에 청소년의 눈높이에 딱 맞는 관광 코스들이다. 출발하기 전에 코스에 들어있는 관광지에 대한 정보를 검색하는 역할을 맡기면 자녀들은 자연스럽게 교육적 효과가 큰 관광지 정보를 익히게 될 것이다.

교과서 속의 명소 찾아가는 여행도

패키지 상품을 따라가기는 싫고, 개별 여행을 하자니 경험이 없어 망설여진다면, 둘을 결합한 형태의 행사도 있다. 한국관광공사는 SK에너지와 공동으로 1백가족을 교과서 속에 등장하는 관광지로 초대하는 행사를 벌인다. 가족단위로 승용차로 개별 이동하지만 방문할 관광지, 식사 장소 등이 사전에 섭외되어 있어 고민할 필요가 없고, 한국관광공사와 SK에너지가 교통비를 제외한 모든 비용을 부담해 주니 경제적 부담도 없다.

'호반의 명소, 희망이 강물처럼 흐르는 춘천여행' 이벤트의 경우 1월 16일까지 진행된다. 이는 교과서 속 명소를 찾아가는 여행 중 하나다. 사이트에서는 초등학교 1학년 사회 교과서에 등장하는 의암 류인석, 중학교 국사 교과서에 등장하는 한송사지 석조보살좌상 등을 소개하고 있다.

조선 DB

무주 덕유산에서 새해 일출을 바라보는 등산객들.

의암은 조선 후기의 학자이자 의병장으로 1876년 병자수호조약을 체결할 때 반대하는 상소를 올렸고, 1894년 갑오개혁 후 김홍집의 친일내각이 성립되자 의병을 일으켜 독립운동을 했다. 한송사지 석조보살좌상은 국보 제124호로 국립춘천박물관에 있다. 원래 강릉 한송사지에 있던 것을 1912년 일본인들이 반출했다가 1966년 한일협정체결로 반환됐다.

한국관광공사 국내마케팅팀 김종혁 대리는 "겨울방학을 맞아 해외 여행도 좋지만 국내 구석구석에 숨어 있는 명소들을 많이 찾아가서 역사적인 의미도 되새겼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날씨가 추워지면 집 밖으로 나서기가 망설여진다. 따라서 겨울은 국내 관광이 크게 위축되는 시기이다. 하지만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마련한 풍성한 이벤트에 참여한다면, 큰 경제적 부담 없이 국내여행을 즐기며 한겨울 추위를 이겨낼 수 있을 것이다.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니 지금 당장 한국관광공사 홈페이지를 방문해 보자. 장애인들을 위한 관광가이드북 '우리도 간다', 한국관광공사 여행전문지 '청사초롱', '시티투어 Go! GO!' 등을 사이트와 연계해서 이용할 수도 있다.

전천후로 사용할 수 있는 대한민국 대표 여행카드 '코리아패스' 출시 기념 '코리아패스 입소문내기 배틀' 이벤트 참여도 잊지 말자. 1월 23일까지 보다 많은 소문을 내는 참가자 2백명에게 경품을 제공한다. G

글 · 서일호 기자

한국관광공사 www.visitkorea.or.kr

근초고왕은 4세기경 한·중·일 무역로를 장악했고 고구려와도 전쟁을 벌여 고국원왕을 전사시킨 군주였다. 사진은 KBS 사극 '근초고왕'의 한 장면.

정복군주 근초고왕이 2010년 연평도를 바라본다면

근초고왕이 위대한 것은 그가 승리한 전쟁이 국가에 막대한 이익을 주었기 때문이다. 황해도 바닷길을 둘러싼 고구려와의 전쟁 승패로 백제에서 중국을 오가는 항로확보에 머무는 것이 아니었다. 중국의 남조와 북조를 오가는 항로의 확보이기도 했다.

고대 삼국의 역사는 판타지나 드라마가 아니었다. 끝이 보이지 않은 전쟁이 지속되던 시기 야전에서 목숨을 잃거나 치욕적인 처형을 당한 국왕들이 나왔다. 패배한 왕들은 무역의 이권을 잃었다. 국가를 위해 부를 재생산해야 하는 입장에 있었던 국왕들은 전쟁에서 패배의 두려움에 떨었던 한 인간이었다. 고구려와 백제의 전장(戰場)으로 역사여행을 떠나보자.

드라마 '근초고왕'이 인기다. 백제의 전성기를 이룬 정복군주 '근초고왕'(近肖古王, 13대, 재위 346~375)의 초반 일생은 기록의 부재 때문에 영원히 어둠 속에 남아있다. 왕위에 즉위한 이후의 기록도 마찬가지다. 근초고왕과 그의 아버지로 기록된 비류왕(比流王)과의 관계도 명확하지 못하고, 그의 부인이 진씨(眞氏)라는 점, 그녀의 집안이 권세가라는 점 외에는 기록이 없어 알 수 없다. 즉위 초반 18년 동안 완전히 백지상태나 다름없다. 근초고왕이 즉위 초반의 불행하고 좋지 않은 기억을 마치 삭제라도 한 듯이 말이다.

하지만 그의 말년 전성기는 기록에 남았다. 그것도 한국·중국·일본 3국의 기록 모두에 말이다. 이는 앞서 주목받지도 못했던 그의

등장에 당시 동아시아 세계가 놀랐다는 것을 의미한다. 왕은 마한(馬韓)을 정복하여 그 영토가 전라도 남해안 일대까지 미쳤고, 동시에 낙동강 유역에도 진출하여 가야제국에 대한 지배권을 확립했다. 나아가 북쪽으로 대방군(황해도) 땅으로 진출하여 이 지역을 한발 먼저 점령한 강국 고구려와 격돌했다. 그리고 승리했다. 근초고왕은 위대한 정복군주였다.

하지만 영토 확장만으로 그를 위대한 군주라 보는 시각은 잘못된 평가다. 무익한 전쟁은 나라를 망하게도 한다. 그가 위대한 것은 전쟁이 국가에 막대한 이익을 가져다주었기 때문이다.

평양성 포위공격… 고구려 고국원왕 전사

삼국사기에 따르면 369년 가을, 고구려군 2만명이 치양(황해도 연백)에 들어와 진을 치고 약탈을 시작했다. 곡식과 재물을 강탈하고 반항하는 남정네들은 죽이고 여인네들은 폭행했다. 소식을 접한 근초고왕은 아들 근구수와 휘하의 병력을 보냈다.

"약탈은 병사들의 사기를 올리는 데 특효약이지만 그 순간 기강이 엉망이 된다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다. 약탈에 정신이 팔려 흩어진 고구려 군대를 급습하라!"

지름길로 접어든 근구수와 그의 군대가 현장에 도착했을 때 목격한 것은 오합지졸이었다. 백제군의 급습으로 고구려군 1만 이상이 도주하고 5천명이 죽거나 포로가 되었다. 근초고왕은 포로가 된 자들을 노비로 만들어 장군들과 병사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근초고왕에게는 과시였지만 고구려 고국원왕(故國原王)에게는 치욕이었다. 371년, 고국원왕은 다시 군대를 소집했다. 진군하던 고구려 군대는 패하(貝河 · 예성강)에서 근초고왕이 매복시켜 놓은 백제군에게 걸려 많은 병력을 잃고 평양성으로 철수했다. 분노한 고국원왕은 다시 군대를 모아 반걸양(배천)에서 황색깃발을 든 백제군과 대진했다.

백제는 고구려 군대의 약점을 정확히 간파하고 있었다. '사유'라는 사람이 정보를 제공했다. "고구려군은 군사가 많아 보이기는 하지만 그것은 숫자만 채운 것입니다. 날쌔고 용감한 병사들은 오직 붉은 깃발을 든 부대뿐입니다."

근초고왕의 아들 근구수는 작전을 금방 짤 수 있었다. 휘하의 장군 막고(莫古)는 붉은 깃발의 고구려 부대에 집중적인 공격을 개시했다. 고국원왕은 "악!" 하고 놀랐다. 붉은 깃발의 부대가 격파되니 다른 부대는 흩어져 달아나기 바빴다. 백제군은 추격하여 학살을 시작했다. 현재의 황해도 배천에서 신계에 이르기까지 고구려군의 시신이 널려 있었다고 삼국사기는 전한다.

고국원왕은 힘없이 평양성으로 돌아갔다. 하지만 근초고왕은 여유를 주지 않았다. 고구려군이 다시 보강되기 전에 확실한 승리를 거두려고 했다. 그해 겨울 근초고왕은 태자 근구수와 함께 병력 3만을 동원하여 평양성으로 향했다. 백제군에게 둘러싸인 평양성은 언제 한 곳이 뚫려 함락될지도 모르는 상황을 맞게 되었다. 전투가 한창이던 순간 노인이 된 고국원왕은 성(城) 안 여기저기를 다니면서 군사들을 독려했다. 화살이 비 오듯이 쏟아지는 가운데 한 발이 고국원왕을 맞혔고, 그는 세상을 떴다. 371년 겨울 10월 23일(음력)이었다.

백제와 고구려가 4세기 중 · 후반 황해도를 두고 국왕이 전사할 정도로 치열하게 싸운 이유에 대해 말해야겠다. 4세기 초 5종의 오랑캐들-오호(伍胡): 흉노(匈奴), 갈(羯), 선비(鮮卑), 저(氐), 강(羌)-이 북중국을 차지했다. 북중국이란 어항은 모두 육식성 고기들만 있었다. 한 마리가 남을 때까지 서로를 잡아먹을 수밖에 없었다. 중국이 무정부 상태가 되자 한반도에 있던 그 식민지 낙랑 · 대방군이 무너졌다(313년).

대방군이 누렸던 '동아 지중해' 해상무역 독점 야심

황해도는 삼국지(三國志)시대 중국 지방정권인 요동(遼東)의 공손씨(公孫氏)가 대방군을 설치한 곳이다. 여기서 남쪽의 삼한은 물론 일본열도 및 남중국과 해상무역을 했다. 대방군은 7개 행정단위의 현을 거느리고 있었고, 4천9백호에 2만5천명 이상의 사람이 살았다.

황해도는 남중국에서 북중국으로 가는 항로의 중요한 기항지였다. 남중국에서 북중국으로의 해안선을 따라가는 연안 항해는 물길이 불안정했다. 그래서 남중국에서 북중국 으로 가는 배는 한반도 남쪽으로 접근해 백제의 해안을 따라 북쪽으로 가야

조선 DB

서울 송파구 '한성백제문화제' 거리 퍼레이드 모습. 근초고왕은 한강 유역과 서해안 해상로를 장악하여 4세기 중반 백제를 크게 부흥시켰다.

안전했다. 황해도 서쪽 끝에서 바다를 통해 중국 산동이나 요동으로 갈 수 있었다.

황해도를 둘러싼 전쟁의 승패는 백제에서 중국을 오가는 항로확보에 머무는 것이 아니었다. 중국의 남조와 북조를 오가는 항로의 확보이기도 했다. 근초고왕에게는 과거 공손씨의 대방군이 누려온 '동아 지중해' 해상무역을 독점하려는 야심이 있었다. 그는 고구려와의 전쟁에 앞서 일본열도와 교역의 물꼬를 트고자 했다. 지금의 경상도 낙동강 서쪽 지역에 가야연맹이 있었다. 그 가야소국 중 하나인 탁순국(卓淳國)은 낙랑 · 대방군의 멸망 후 일본열도와의 접촉 창구였다.

366년, 근초고왕은 그곳에 장군 막고 등을 사신으로 보낸다. 일행은 서해안을 남하하여 남해안에서 동쪽으로 갔다. 수많은 섬이 아스라이 펼쳐져 있었다. 배는 남해안 어느 어귀에 도달했고, 일행은 육지에 내려 탁순국 관리들의 안내를 받았다. 성문을 지나 거대한 집으로 들어갔다. 백제사신을 맞이하기 위해 탁순국왕 한기말금(旱岐末錦)이 대청에 앉아 있었다.

서울 송파구 석촌동 백제 초기 적석총에서 개최되는 백제고분제의 모습. 석촌동에는 근초고왕 무덤으로 추정되는 사각형 기단형식의 무덤이 남아 있다.

막고가 말을 꺼냈다. "저희 근초고왕께서는 왜국과 교역을 원하고 있습니다. 왕께서 왜국과 통하는 길을 알려준다면 우리 왕께서 크게 후사하겠다고 하셨습니다." 백제에 일본열도에 대한 중개무역권을 빼앗길 수도 있겠다는 두려움이 탁순국왕을 엄습했지만 백제왕의 청을 거절할 수 없었다.

고대 수많은 무역선이 오가던 연평도 바닷길

2년 후 왜국 사신이 백제의 수도로 왔다. 왜의 사신은 선물을 받았다. 5색의 비단 각각 한 필과 뿔로 만든 활, 그리고 철덩어리(鐵鋌) 40개였다. 근초고왕은 왜국의 사자에게 세일즈 외교를 했다. "진귀한 보물이 많아요. 돌아가시거든 우리가 귀국과 교역을 원하고 있다고 전해주시오." 그리고 중국에서 수입한 사치품을 모아 놓은 백제왕궁 창고의 문을 열었다. 왜국의 사신이 감탄했다.

근초고왕은 전라도 서남해안 지역(마한)을 장악하여 수도인 한성(서울지역)에서 서남해안으로 가는 항로를 열어 가야지역에 영향력을 확대하고, 일본열도와 교역의 선이 닿았다. 하지만 고구려로부터 황해도를 탈취하여 중국으로 가는 항로를 열어야 했다. 그래야 일본열도에서 원하는 중국산 사치품을 대량 수입하여 중개무역의 거리(巨利)를 얻을 수 있었다.

371년, 평양에서 고구려 국왕이 전사했다는 소문은 순식간에 고구려를 지나 중국 전역에 삼한(三韓)을 지나 일본열도에까지 퍼졌다. 백제의 헤게모니 장악은 대중국 항로의 안전을 보장했다. 이듬해 근초고왕은 양자강 남의 동진(東晋)에 사신을 보냈고(삼국사기), 황제(簡文帝)에게 진동장군영낙랑태수(鎭東將軍領樂浪太守)의 작호를 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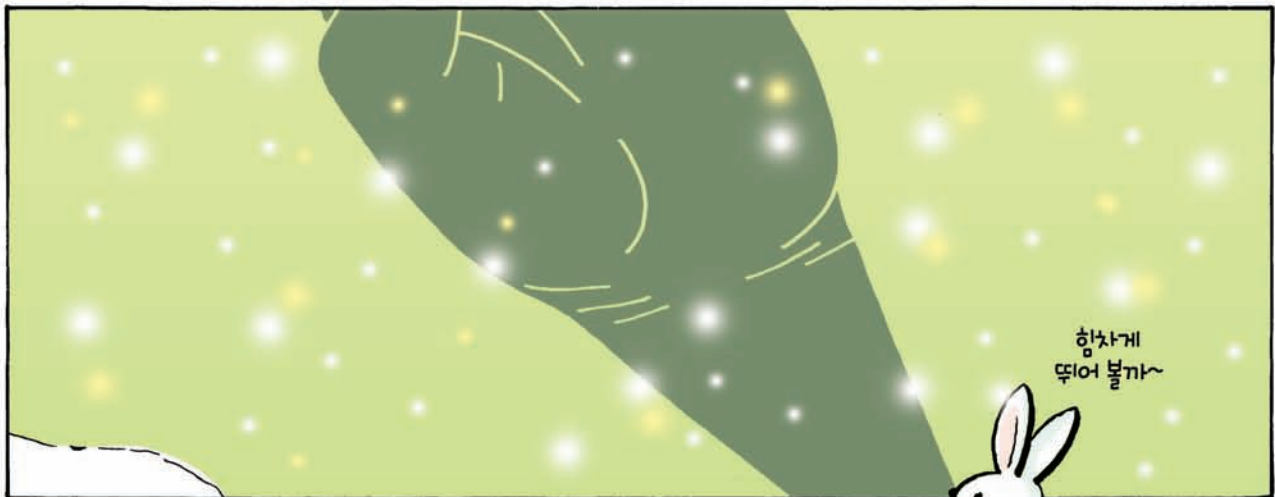
동진은 근초고왕에게 과거 낙랑군의 역할을 인정했을 뿐만 아니라 공식적으로 조공무역을 허락했다. 남중국의 화려한 사치품이 다량으로 백제에 쏟아져 들어왔다. 신라, 가야 지역과 일본열도에 있는 수없이 많은 나라가 백제와 교역을 원했다. 근초고왕의 등장으로 백제는 대외교역의 중심지가 되었으며, 이후 군상(軍商) 복합체의 무역강국으로 나라의 성격이 바뀌었다. 이때가 백제의 최대 전성기로 기록된다.

4세기 말 황해도 남단의 항로 확보를 놓고 고구려와 치열한 싸움을 해야 했던 근초고왕은 오늘날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다. '힘은 경제의 중요한 요소이다.' 중국을 오가던 백제의 배들이 고대에도 바라보고 지나갔을 연평도에 지금 북한의 도발로 세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G

글 · 서영교(중원대 박물관장)

생각 나름

구성 | 권우영
그림 | 안종만

힘차게
뛰어 볼까~

깡충깡충 뛰는 토끼처럼 생기 넘치는 2011년 되십시오.

서양미술사 거장들이 왔다

〈피카소와 모던아트〉展

덕수궁미술관에서는 인상주의 이후 유럽 현대 미술의 흐름을 조망해 볼 수 있는 〈피카소와 모던아트: 열정과 고독〉전이 열리고 있다. 이번 전시는, 오스트리아가 자랑하는 국립 알베르티나 미술관의 최초 해외 전시이다.

그동안 국내에 소개되었던 19세기 말 프랑스 인상파 화가 작품은 물론 20세기 초까지의 작품들을 다채롭게 감상할 수 있다. 식민지 쟁탈, 세계대전 등 비인간화에 대한 위기의식이 팽배하던 20세기 초반에 만들어진 예술품을 통해 당시 작가들의 고독과 열정, 삶과 예술에 대한 인식을 고루 느낄 수 있다. 피카소로 인해 잘 알려진 입체파, 마티스로 대변되는 야수파로부터 독일 표현주의까지 세계 미술의 한 축이었던 39명의 작가를 만날 수 있다. 회화, 조각, 드로잉 등 다양한 작품이 전시되어 있다.

이번 전시는 모방과 재현에서 벗어나 주관(主觀)을 중시했던 20세기 미술을 중심으로 한다. 총 4개의 테마로 구성됐다. 시냐크·샤갈 등의 작품을 만날 수 있는 '내면을 향한 열정', 독일의 다리파 작가들의 작품을 볼 수 있는 '시대의 불안', 청기사파 · 오르피즘 등을 만날 수 있는 '순수조형의 추구', 피카소 · 자코메티 등의 신표현주의 작가 작품들을 볼 수 있는 '고뇌의 열정' 등이다.

일시 2011년 3월 1일까지 **장소** 덕수궁미술관 1,2층 전관

관람료 성인 1만1천원, 학생 9천원, 아동 4천원, 특별할인 5천원(65세이상, 국가유공자 및 독립유공자, 장애인 및 보호자, 기초 수급 대상자, 효행 우수 표창자, 교사자격증 소지자) **문의** 02-757-3002

뮤지컬 〈아이다〉

한국공연 사상 최고의 매커니즘을 보여준 뮤지컬 〈아이다〉가 5년 만에 돌아왔다. 공연 내내 화려함과 웅장한 스케일을 자랑하는 것을 물론, 달라진 캐스팅과 공연 전후로 오케스트라의 지휘를 맡은 박칼린 감독의 모습도 볼거리다.

일시 2011년 3월 27일까지 **장소** 성남아트센터 오페라하우스

관람료 VIP석 12만원, R석 10만원, S석 8만원, A석 6만원, B석 4만원, 장애인 복지카드 소지자 50퍼센트 할인 **문의** 031-783-8000

발레, 무용 〈미친백조의 호수 Ⅰ, Ⅱ〉

부제: 김남진 댄스씨어터 창 2011 환경 Project

〈미친백조의 호수 Ⅰ, Ⅱ〉는 인간의 안일한 사고에서 점차 몰락해 가는 자연의 모습을 보여준다. 안무가 김남진과 장애인 행위예술가 강성국씨가 함께 참여한 작품으로 장애인과 일반인의 만남을 통해 작품의 주제의식과 더불어 폭넓은 움직임을 선보인다. G

글 · 이미령 기자

일시 2011년 1월 19~23일 **장소** 아르코예술극장 소극장

관람료 학생석 1만원, 일반석 1만2천원 **문의** 02-2263-4680

비장의 무기

글과 그림 · 최영순

아무도 가지 않을 땐 수풀에 불과하지만 누군가 걷기 시작하면 그것은 길이 된다. 희망이 꼭 그러하다. -루신(중국의 문학가)

한국의 일류국가 도약엔 외국 관광객이 '최고 조언자'

신문사 특파원으로 여러 해 근무하다 보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많은 나라를 여행하게 된다. 그러나 여권에 남은 출입국 기록을 보면, 확실히 방문했음에도 어떤 나라였는지, 누구와 만났는지,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는 나라가 몇 곳이 있다.

평상시 국제회의 취재 때도 마찬가지다. 각국 정상이 모이는 대규모 국제회의를 각지에서 여러 차례 취재했다. 그러나 기억에 남는 것은 취재 본부인 프레스센터뿐이다. 풍경이나 음식, 그 나라의 문화를 깊이 체감한 기억은 거의 남아 있지 않다.

2010년 한국에선 G20 정상회의가 열렸다. 회의 개최 전부터 한국은 세계 각국의 정상과 취재진을 환영하는 무드 일색이었다. 회의를 조직하고, 운영하는 기술은 탁월했다. 그 점에 있어서, 한국은 정부의 슬로건대로 '초일류국가'로 첫걸음을 확실하게 내디딘 것만은 틀림없다. 한국 국민들에게 "축하합니다"라고 말하지 않고는 못 배길 만큼 훌륭한 회의 운영이었다고 생각한다.

다만, 마음에 걸리는 것은 회의 참석을 위해 방한한 세계 각국 정상과 그 수행원, 취재진은 과연 얼마만큼 한국의 참모습을 접했을까 하는 것이다. 내 경험으로 말한다면, 정상들과 수행원들은 회의가 열린 코엑스(COEX), 숙소인 호텔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고, 수행 기자 대부분은 회의가 끝나자마자 정상 일행을 따라 서둘러 서울을 떠났을 것이다. 조명이 아름답게 비치는 광화문이나 곱게 단풍으로 물든 남산의 경치를 즐기지도 않고 말이다.

'한국은 국제화된 초일류 국가가 될 것인가'. 사실, 그것을 판단하는 것은 국제회의를 마치고 바쁘게 서울을 빠져나간 각국 정상이나 취재진이 아니다. 가장 엄격한 '평론가'는 한류 붐의 팬들로, 몇 차례나 한국을 찾은 일본의 평범한 '아줌마'들이다. 그들은 처음 한국을 방문해 여행가이드북을 한 손에 들고, 한류드라마의 촬영지나 번화가를 돌아다닌다. 두 번째 방문에서 그들은 처음에는 가지 않았던 '숨겨진 명소'를 방문하기 위해 지하철이나 버스를 타고 서울 시내를 돌아다닌다.

그다음 서울을 방문할 때는 KTX나 고속버스를 이용, 지방 구석구석까지 돌아보기도 한다. 나도 '여기까지 일본 관광객들이 오지는 않겠지'라고 생각하고 간 곳에서 일본의 부인 그룹들을 만나 놀란 적이 한두 번이 아니다. 그들은 골목식당에 들어가 옆자리의 아저씨가 먹는 것을 가리키며 식사를 주문한다.

그들은 음식 맛이 없으면 먹다 남기고, 맛이 있다면 식당 아주머니의 손을 잡으며 "가무사하무니다"라고 미소를 띠고, 또다시 한국을 찾아올 때는 친구들을 데리고 와 "여기가 내가 발견한 비밀 명소"라고 자랑할 것이다.

각국 수상들은 "G20 한국의 식사가 맛있었다"라며 친구들에게 한국 방문을 권할 것인가.

간 나오토(菅直人) 수상에게 훌륭한 요리를 대접하는 것보다, 한국을 찾은 일본 아줌마들에게 한국인들이 늘 먹는 서민의 맛을 미소와 더불어 맛보게 하는 것이 얼마만큼 한국의 이미지 향상에 관계가 있을지는 모르겠다.

한국인들은 큰 행사의 성공을 위해서라면 모두가 한마음으로 노력하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행사가 끝나면, 행사 때 외쳤던 슬로건을 곧 잊어버리고 마는 것도 한국인들의 특징이다.

G20 회의가 끝난 지금, 세계 각국에서 한국을 찾아오는 일반 관광객들이 초일류 국가 달성을 위한 '최고의 조언자'라는 것을 한국인들은 상기할 필요가 있다. G

오사와 분고 (마이니치신문 서울지국장)

문화체육관광부

"겨울에도 갈 곳 많은 우리나라가 참 좋아요"

올 겨울은 또 어떤 모습이 숨어있을까요?
청소년과 가족을 위한 테마별 겨울 관광 코스

가보자! 구석구석 아름다운 대한민국

인천 밤바다 짱이예요!(당일)

[상품코스]
서울출발–달동네박물관–개항박물관–자유석식–월미테마파크– 서울도착

대게먹고, 한우먹고, 백암온천 즐기기(1박2일)

[상품코스]
1일차 : 서울–이몽룡생가–중식(한약우불고기)–닭실마을–불영계곡–엑스포공원–석식(대게)–백암온천 및 숙박
2일차 : 월송정–금강소나무생태경영림 –중식(산채비빔밥)–선바위 관광지(영양고추홍보전시관) –두들마을과 이문열생가– 서울도착

남도별미/순천만갈대/향일암/오동도/담양온천(1박2일)

[상품코스]
1일차 : 서울(용산역)–광주–송광사(별미식)–낙안읍성 민속마을 관광–순천만 갈대밭–여수(별미식)
2일차 : 향일암 해돋이–여수(별미식)–오동도–담양(별미식)–대나무파크공원–담양온천 –광주–서울(용산역)

덕유산 곤도라/무주구천동/와인터널(당일)

[상품코스]
서울–대전역–무주리조트–곤도라탑승–자유중식 및 무주구천동 계곡 트래킹–와인터널–대전–서울

가야산국립공원 해인사와 생명의 땅 성주(1박2일)

[상품코스]
1일차 : 세계문화유산 해인사–중식–성주 성산동고분군
2일차 : 한개민속마을–세종대왕자태실

천년길 하늘재 트래킹과 수안보온천체험(당일)

[상품코스]
월악산 하늘재 트래킹–수안보온천

부산/외도/거가대교 (1박2일)

[상품코스]
1일차 : 서울–거제–외도/해금강–거가대교–부산(해운대) 숙박
2일차 : 동백섬–금정산성 케이블카–서울

동해의 선상크루즈와 안목항 커피로드(당일)

[상품코스]
서울–주문진항(선상크루즈)–주문진 수산시장–안목항커피거리–서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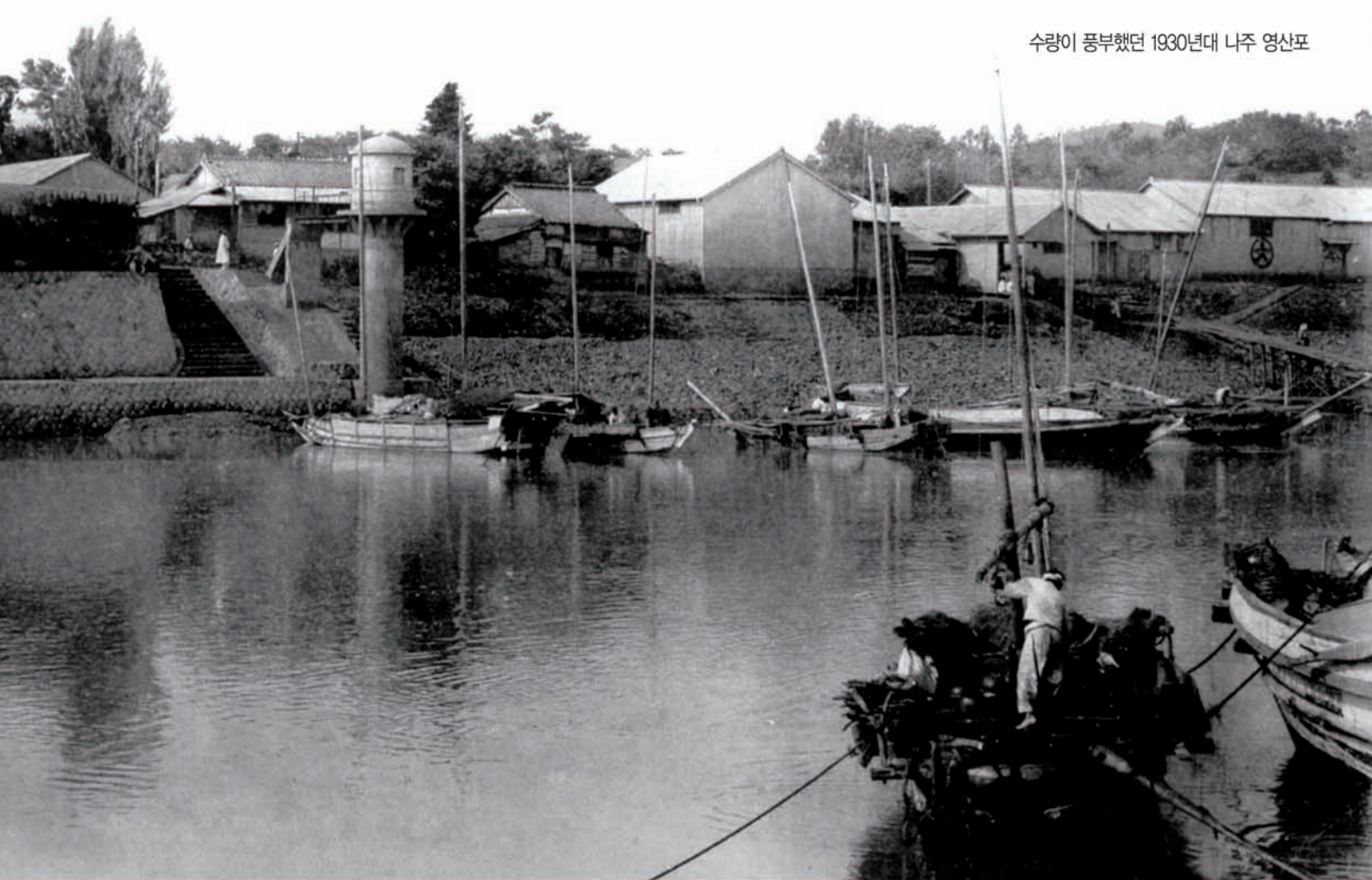
태백산 환상선 눈꽃열차여행(당일)

[상품코스]
영월 청령포–개별중식–영월〉태백 구간열차–태백산도착 태백산 눈꽃, 석탄박물관, 눈썰매 타기

딸기따고,참숯가마 찜질하고 행복한 겨울여행 (당일)

[상품코스]
여주 신륵사, 개별중식–여주 참숯가마 찜질–이천 딸기

떠나시기전에,
홈페이지 내의 이벤트 페이지에서
다양한 정보와 이벤트를 미리 만나보세요
기간 : 12월 30일부터
www.visitkorea.or.kr

수량이 풍부했던 1930년대 나주 영산포

4대강살리기는 강의 원래 모습을 되찾아 주는 것입니다

4대강살리기 사업으로 제 모습을 찾기 시작한 금강세종시 구간

강에 퇴적토가 쌓이지 않았던 1930년대만 해도
내륙 깊숙이 배가 왕래할 정도로 수량이 풍부했습니다
4대강살리기는 퇴적토를 청소하여 우리 강을 치료하고
풍부한 수량을 확보하여 생명과 희망이 돌아오게 하는
우리강 제 모습 찾기입니다

강을 치료합니다
강바닥에 쌓인 퇴적토를 걷어내어
홍수와 가뭄으로 신음하던
강을 치료하게 됩니다

생명과 희망을 돌아오게 합니다
넉넉해진 강물로 인해 조류와 물고기등
주변 생태계가 풍요로워집니다

환경을 생각합니다
주변환경과 자연을 생각해서
환경을 보호하는 친환경 공법을
사용합니다